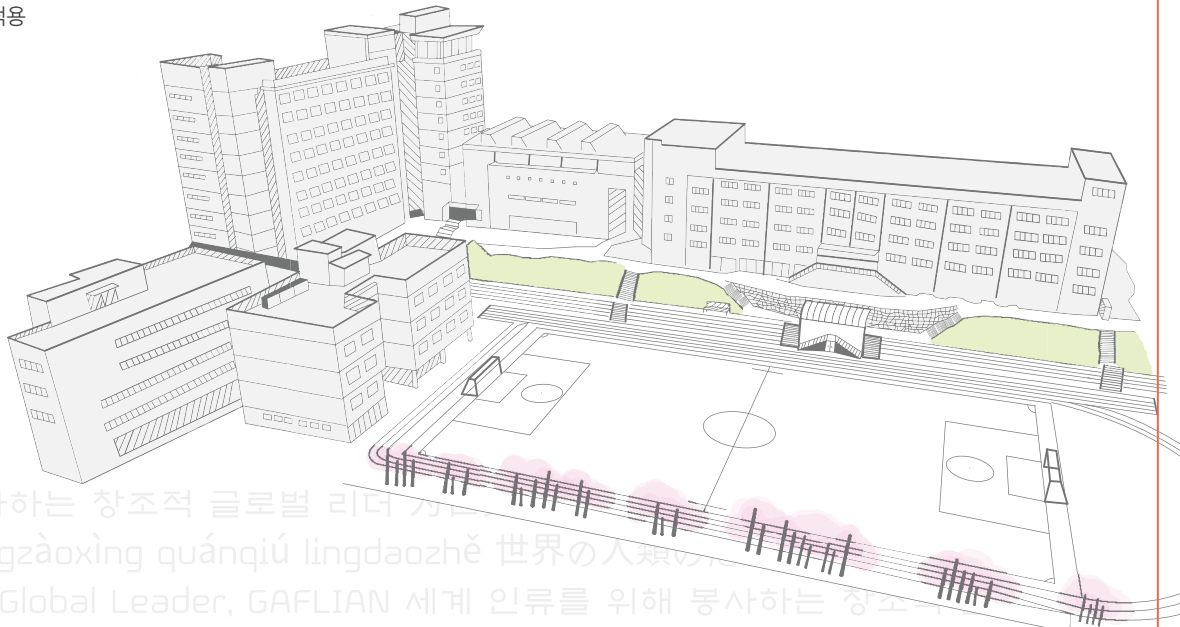




GAFL, A World Class Institution

Contents

- 2 인터뷰(안종협 선생님, FASHIONATE, ALL STARS, ANKLEBREAKERS, CHIME)
- 7 가플리언들의 열정, 체육 대회 / 가플리언들의 긍지, Pride of Korea
- 8 GVT TO SINGAPORE
- 9 2022년도 두띠콘서트
- 10 가플리언들의 모든 것
- 12 GAFL 선생님들의 모든 것
- 13 사감장 선생님의 GAFL 생활관 Q&A
- 14 MBTI 테스트, 과연 믿을 수 있을까?
- 15 수리남... 영화는 영화로 보는게 맞을까?
- 16 뉴스, 어디까지가 진실인가?
- 17 한국 언론의 문제점과 고질적인 병폐
- 18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활성화"... 민주시민을 향한 걸음
- 19 빅데이터, 4차 산업혁명의 언어
- 20 세계의 언론 자유 지수, 한국은?
- 21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으로 힘들어지는 마음,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 22 계속해서 추워지는 날씨, 그 원인은?
- 23 더 잘 살기 위해, 데스카페
- 24 자존감, 나로 살아갈 용기
- 25 때려야 뗄 수 없는, 기억과 공부
- 26 검경 수사권 조정
- 27 Media Representation, How Far To Go?
- 28 마스크는 일회용이다? NO! 이제는 페마스크 업사이클링 시대
- 29 교육계의 뜨거운 감자, 잇따르는 '외고 폐지' 논란
- 30 우리나라 부동산의 전망 - 일본의 버블 경제 상황과 비교하여
- 31 [기획기사] <1984년>과 <시녀 이야기>, 심리, 그리고 전체주의
- 34 뉴로 마케팅과 실생활의 적용
- 36 GAFL에서 이런 일이?!



세계 인류를 위해 봉사하는 창조적 글로벌 리더 for the service of the world's humanity creative Global Leader, GAFLIAN 세계 인류를 위해 봉사하는 창조적 글로벌 리더 for the service of the world's humanity creative Global Leader, GAFLIAN 세계 인류를 위해 봉사하는 창조적 글로벌 리더 for the service of the world's humanity creative Global Leader, GAFLIAN 세계 인류를 위해 봉사하는 창조적 글로벌 리더 for the service of the world's humanity creative Global Leader, GAFLIAN

우리 학교의 Glory

안종협 선생님

우리 학교에서 영어과목을 담당하고 계신 안종협 선생님을 만났다.
수업 시간에는 알 수 없는 다양한 질문들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Q 많은 직업 중 교사를 직업으로 택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 내가 학교 다닐 때 교사 중에 한 분이 되게 인생 재밌게 사시는 거야. 방학 때마다 배낭 여행 갔다 오고 수업 시간에 공부도 안 가르치고 맨날 여행 얘기나 하고. 나는 그 수업이 맨날 기다려졌어. 너무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고 하는 좋은 시간이었거든. 그래서 학생들은 다 싫어하는데 나는 그 선생님 되게 좋아했어. 그리고 교사를 하면 다른 직업보다 나만의 시간도 많고 특히 방학이라는 매력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인생을 교사 활동을 하면서 지내면 교사로서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내가 자신이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겠구나 그런 막연한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 그래서 교사를 직업으로 선택했지.

Q 지금까지 경험해보신 GVT 중 어떤 GVT가 가장 기억에 남으셨는지 궁금합니다.

A 준비하는 과정에서 있어서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좋은 방향으로 진행되었던 알래스카가 제일 기억에 남아. 알래스카에 학생들하고 꼭 한 번 같이 가고 싶어서 준비하며 찾아 보는데 여러 방법 중에 벤쿠버-알래스카 크루즈 선이 노선도 아름답고, 꼭 한 번 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7박 8일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타다 보니 당시 크루즈 측은 분위기를 중요시 여기고 관리했었어. 그렇기에 수학여행으로 학생들 26명을 데리고 크루즈를 탄다는 것은 전례가 없었고, 미성년자들이기 때문에 분위기가 나빠진다고 생각했는지 거절했어. 선생님은 절박했기에 “경기외고라는 학교는 한국의 명문 고등학교들 중 하나이고 학생들은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는 우수한 학생들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보름간 함께한다면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추억거리가 될 것입니다.”라고 설득을 하는 장문의 편지를 썼어. 편지를 보내니까 “우리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지만 좋은 선례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이런 프로그램이 부족했는데 학생들이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는 수학여행을 한 번 추진해보고 싶다”라는 연락이 3일 뒤에 왔어. 크루즈를 타고 학생들과 같이 여행 하며 다양한 문화를 크루즈에서 경험했어. 그런 것들이 힘들었지만 보람도 있고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좋은 추억 거리가 되었어.

Q 제일 좋아하는 영어 단어는 무엇인가요?

A Serene. 평화롭고 고요하지 않아? 내가 예전에 전자 사전이 제일 먼저 나왔을 때 영문학 수업을 듣는데 들도 못한 단어를 쓰는 거야. 그래서 영영 사전을 찾는데 진도가 안나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 20만원인가를 주고 무리해서 과외비로 전자사전을 샀어. 다음 날 영어 시사 가르치는 송중훈 교수님하고 점심식사를 하다가 전자사전을 자랑했어. 요즘은 이런거 갖고 공부한다고. 한 번 보자시길래 드렸더니 처음에 찾은 단어가 serene이더라고. 그 단어가 난 너무 좋더라. 내가 제일 좋아하는 교수님이 전자사전에서 처음으로 찾았던 단어야. 그래서 그 단어가 내가 마음이 편해져서 가장 좋아하는 단어야.

Q 영어 교사가 되고 싶은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A 영어 교사를 하면 시야가 협소해져. 미국 중심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 그렇기에 영어 교사가 된다면 특히 우리나라, 미국 생활 전통 그런것들에 너무 기준을 잡고 맹신하지 않았으면 해. 영어는 세계인들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니 다양한 시각, 다양한 경험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해. 그런 것들이 학생들에게 균형 잡힌 시각과 균형 잡힌 지성인을 배양할 수 있는 선생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야.

Q 마지막으로 경기외고 학생들에게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A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향도의 별이자 인생의 지렛대 같은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아쉽고 답답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더 권위 있는 선생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 여러분들도 같이 함께 열심히 공부하고 성장해 나갑시다.

Passionate for fashion, FASHIONATE

패셔네이트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패셔네이트의
부장인 손아현과 만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Q. 패셔네이트를 간단히 소개해주세요.

A. 패셔네이트는 인문 융합 동아리로, 패션이라는 한 가지를 중심으로 언론, 마케팅,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의 진로에 알맞게 활동을 하고 있는 동아리입니다.

Q. 이 동아리에 가입하는 학생들 중 어떤 진로를 가진 친구들이 가장 많나요?

A. 저희 학교에 경제, 경영을 희망하는 친구들이 많다보니 저희 동아리에는 패션 마케팅 분야를 희망하는 친구들이 가장 많습니다. 이 외에는 패션 디자이너나 패션 비즈니스와 관련해 진로를 꿈꾸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Q. 패셔네이트의 올해 향후 활동 계획이 궁금합니다.

A. 패셔네이트는 크게 1학기에는 세부 활동, 2학기에는 총괄된 매거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학기에는 타 동아리과의 연합 그리고 마케팅, 경영, 디자인, 언론 분야의 다양한 칼럼 작성이라든지 여러 분야의 활동을 하는 것을 위주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2학기에는 1학기 때 활동한 것을 바탕으로 매거진을 만들어서 룩북을 찍고 칼럼 작성 후 디자인을 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Q. 패션 동아리인 패셔네이트만의 장점을 알려주세요.

A. 패션 동아리라고 하면 보통 디자인에 중점을 둔다고 생각 할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패션 산업에는 굉장히 많은 분야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진로를 갖고 있더라도 관심만 있다면 진로에 연관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언론이나 경제, 경영 분야는 많이 희망하는 진로인데 패셔네이트 활동을 통해서 잘 살릴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Q. 부원을 뽑을 때 고려하는 자질을 알려주세요.

A. 면접이랑 참가자들의 지원서를 바탕으로 생각해봤을 때 패션에 얼마나 관심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배우는 과정도 동아리 활동에 포함되지만 동아리 부원끼리의 패션 이해도가 어느 정도 비슷해야 다양한 활동을 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자신만의 주관이 뚜렷하고 패션에 대한 관심이 깊은 친구들 위주로 뽑고 있습니다.

Q. 기억나는 동아리 활동과 그 활동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A. 잡지 만든 활동이 세세한 것까지 스스로 했기에, 힘들었지만 가장 의미가 있고 기억에 남습니다. 예산에 맞춰 옷을 준비하며 난해한 주제를 설정하지 않아야 했으며 모델 분들의 사이즈를 체크하고 스튜디오를 잡는 것, 촬영 장비 사용 등의 과정에서 힘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쉽게 접하지 못할 경험을 했기에 분명히 의미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하인드 스토리로는 많은 분들이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한 것으로 알고 계시는 매거진의 사진들은 모두 부원들의 아이폰으로 직접 촬영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도 우리에게는 축구가 있다.” 올스타즈

학교의 유일무이한 축구 동아리인 올스타즈의 부장 공예찬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Q. 올스타즈를 간단히 소개해주세요.

A. 올스타즈는 경기 외고의 최강 넘버원 운동 동아리이며 유일무이한 축구 동아리입니다.

Q. 올스타즈 부원들이 생각하는 올스타즈만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A. 올스타즈의 장점은 여러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선후배 간 교류가 아주 뛰어나서 선후배끼리 친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활동량이 경기외고 동아리 중에서 가장 높다는 것입니다. 시험 기간을 제외하고 일주일에 한 서너 번 정도는 저녁 시간에 모여서 축구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경기외고에서 가장 재밌는 동아리라고 생각합니다. (웃음)

Q. 올스타즈 부원들이 생각하는 축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A. 올스타즈에선 축구를 잘하는 것이 가장 우선시됩니다. 뛰어난 축구 실력 다음으로는 협동심, 인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올스타즈의 부원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자질은 무엇인가요?

A. 아까 언급했듯이 올스타즈에 뽑히려면 축구 실력이 1순위고, 그 다음으로는 인성과 협동심입니다. 훌륭한 축구 실력 또한 동아리에서 필요한 자질이이지만 연습하고 게임을 하게 되면서 서로 싸우고 충돌하게 되는 경우도 있기에 인성과 협동심 또한 필요합니다.

Q. 축구와 공부를 잘 병행할 수 있는 방법?

A. 아스그 1이 끝나고 저녁 시간에 축구를 하고 나서 아스그 2가 시작하기 전에 샤워까지 다 하고 와야 합니다. 이 모든 일정을 다 소화하고 아스그 2 3 4 시간에 공부에 집중을 하는 게 가장 키포인트가 아닐까 생각해요.

Q. 경기외고라는 공부가 중요시되는 학교에서 축구 동아리라는 운동 동아리를 가입해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A. 공부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보면 체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요즘도 몸으로 느끼고 있어요. 축구를 하다 보면 체력이 저절로 길러지기 때문에 체력 증진을 할 수 있는게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뜨거운 코트를 가르며 너에게 가고 있어 ANKLEBREAKERS

유일무이한 농구 동아리인 앵클 브레이커즈의 부장인
김학준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Q. 앵클 브레이커즈 동아리 이름 뜻을 알려주세요.

A. 앵클 브레이커즈라는 동아리 이름은 앵클 브레이크라는 농구 용어에서 나왔습니다. 앵클 브레이크는 발목을 부러뜨린다, 말 그대로 '상대의 수비 중심을 무너뜨려서 넘어뜨린다'라는 의미로, 저희 동아리가 좋은 농구 플레이를 통해 상대 수비를 혼란스럽게 만들자는 취지로 앵클 브레이커즈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Q. 동아리 활동으로 얻은게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저희 부원들도 그렇고 대부분의 경기외고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따라서 많은 학업적인 스트레스가 쌓이는 게 당연합니다. 앵클 브레이커즈는 친구들과 함께 농구를 하니까 스트레스도 많이 풀리고, 농구장 밖에서도 친구들끼리 고민 공유를 하기에 경기 외고에서의 낙을 앵클 브레이커즈를 통해 얻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Q. 앵클 부원들이 생각하는 농구의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 협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농구는 좁은 코트 안에서 한 팀인 5명이 플레이를 하게 됩니다. 워낙 코트가 좁다보니까 5명이 함께 공격을 만들어 나가야 되고 또 5명이 함께 수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기에 뛰지 않더라도 벤치에서 파이팅을 불어 넣어 주는 역할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농구가 스포츠 중에서 협동을 가장 강조하는 스포츠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농구의 매력이라고 생각하고 그 매력 때문에 계속 농구를 하고 있습니다.

Q. 앵클 브레이커즈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자질은 무엇인가요?

A. 앵클 브레이커즈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자질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협동심과 이타심입니다. 아무리 잘하는 선수가 있다하더라도 그 선수가 혼자 플레이할 경우에는 절대로 상대 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혼자서 아닌 5명에서 경기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야 경기에서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희가 새로운 부원을 뽑을 때도 자기중심적인 스타일이 아닌 이타적인 스타일을 더 추구하고 있습니다.

Q. 다른 운동 동아리들과 차별화된 앵클 브레이커즈만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A. 저희 동아리는 국내 반과 아이비 반의 비율이 적절하게 맞춰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이비 친구들과 많이 소통해서 경기 외고의 서로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공유한다는 게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또 농구장 밖에서도 부원들끼리 매우 친하기 때문에 굳이 농구를 하지 않더라도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게 앵클 브레이커즈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Q. 앵클 브레이커즈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는 무엇인가요?

A. 이제 코로나가 많이 줄어들에 따라서 교내 행사뿐만 아니라 교외의 대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의왕시 농구대회와 같은 대회가 개최되어 출전할 기회가 생긴다면 저희도 열심히 연습하여 그 대회에서 입상을 하는게 앵클브레이커즈의 목표입니다.

Q. 농구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이나 선수들에게 필요한 자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 농구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은 체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체력이라고 하면 그게 기술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농구는 많이 뛸수록 승리의 확률이 높아지는 스포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뛸 수 있는 체력이 가장 요구됩니다. 그 다음에 필요로 하는 자질은 파이팅이라고 생각합니다. 농구는 흐름을 굉장히 많이 타는 스포츠입니다. 팀이 잘 되고 있을 때는 더 잘 될 수 있도록 파이팅을 넣어주고, 안 될 때는 그 흐름을 끊고 다시 반전의 계기를 마련해 주는 파이팅이 농구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마지막으로 앵클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학생들에게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A. 농구를 좋아하면 무조건 앵클, 파이팅



Power of Media, CHIME

수능 응원 영상부터 학교 점심 방송까지 학교의 소식을 알리는 방송부인 차임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차임의 홍채연, 김하연, 박연우를 만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Q. 차임에 대한 설명과 각 부서가 하는 일에 대해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차임은 경기외고 대표 방송부이며 1기부터 전통을 이어온 동아리입니다. '울리다, 시간을 알리다'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차임은 작가, 엔지니어, 아나운서로 역할을 나누어 활동합니다. 작가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마다 점심방송 대본을 담당하며 사연, 특집방송, 영화소개, 가플초이스 신청곡을 선정합니다. 또, 단톡방과 인스타그램에 공지사항을 올리는 것을 담당합니다. 엔지니어는 카메라 등 많은 방송기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나운서는 작가가 작성한 점심방송 대본으로 점심방송을 진행합니다. 차임의 목소리라고 할 수 있죠.

Q. 차임에서 활동하며 얻을 수 있는 역량은 무엇이 있나요?

A. 차임에서 활동하다 보면 위기 대처 능력이 좋아집니다. 점심 방송을 비롯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다보면 예상치 못한 일들이 정말 많이 생기기 때문이죠. 또한, 저희가 직접 영상을 제작하다보니 창의력도 기를 수 있습니다.

Q. 여러 학교 행사에 참여하는데 활동 중 재밌었던 에피소드가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A. 이번 연도에 진행했던 체육대회 퍼레이드 영상 중 2학년 퍼레이드 영상이 좀 이상했습니다. 2학년 퍼레이드 영상 속 하이라이트에서 갑자기 줌인, 줌아웃이 반복되더니 특정 학생들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이로 인해 원래 영상으로 올릴지 다른 각도에서의 영상을 올릴지 상의하다 영상 업로드가 지연되었습니다. 이번 인터뷰를 통해 영상 업로드가 늦어진 점,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Q. 차임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부원을 뽑을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등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A.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질은 책임감과 꼼꼼함입니다. 차임 영상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되는 것이기에 큰 책임감이 따릅니다. 또한, 사소한 실수 없이 문제를 해결해야하기 때문에 꼼꼼함이 중요합니다.

Q. 다른 방송부들과 차별화되는 차임만의 특징이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A. 차임은 부원들이 다함께 만들어가는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인력이 필요하며 자주 힘을 모으는 만큼, 차임 내의 선후배와 동기들간의 유대감이 끈끈합니다. 서로 친한만큼 자유로운 의견제시가 가능하다는 점과 화목한 동아리 분위기가 차임만의 차별성이죠. (웃음)

Q. 차임에서 받았던 방송 사연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요?

A. 작년 8월, 졸업생 선배님께서 감동적인 응원 메시지를 사연으로 신청해주셨습니다. 졸업한 선배님께서 사연을 신청해주신거라 인상 깊기도 했고, 저희를 생각 해주시는 마음이 너무 감사해 기억에 남습니다.

Q. 가장 보람을 느꼈던 경험을 알려주세요.

A. 작년에 장미 배달 영상을 직접 기획, 촬영 편집하게 되었습니다. 17기 선배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 저희 18기 부원끼리 제작한 첫 영상이었었는데, 영상을 업로드한 후 조회수가 늘어나는 것을 보고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장미 배달은 신청이 무려 120건으로 큰 관심을 받았고, 특히 16기 선배님들께서 좋은 후기를 남겨 주셔서 보람했습니다.

가플리언들의 열정, 체육 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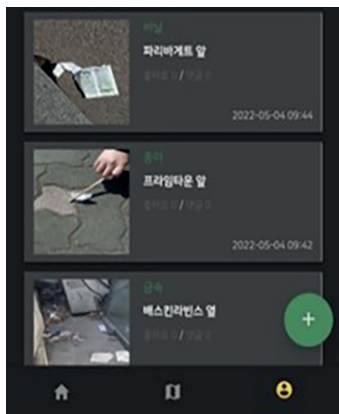
매년 1학기, 모든 학생들의 가장 큰 기대를 받는 행사인 체육 대회가 올해는 5월 13일에 진행되었다. 작년보다도 더 성대한 규모로 진행한 행사였기에 많은 경기외고의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풀면서 즐길 수 있는 날이었다. 특히 올해는 작년과 다르게 퍼레이드도 진행하여 과마다 단합심을 기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퍼레이드 준비 과정은 힘들었을지라도 두 학년의 모든 과들이 보여준 멋진 무대는 다른 학생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에게서도 큰 반응을 이끌어낸 잊지 못할 추억이 되어 주었다. 경기 진행 중 관객석에서 자신의 과의 응원 구호를 과 전체가 외치는 모습 역시 학생들의 단합력을 잘 드러냈다.



이번 체육 대회에서 진행된 경기 종목들은 축구, 피구, 농구, 발야구, 8자 줄넘기, 방어피구, 미션 달리기와 계주였다. 작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행사가 축소되어 없어졌던 종목들도 올해는 모두 진행할 수 있었다. 그 중 새로운 종목인 미션 달리기에서는 선수들이 달리면서 중 여러 가지 미션들을 성공해내야 했는데, 달리기 실력 외에도 미션을 해결하는 센스가 필요하여 계주와는 또 다른 재미를 선사하였다. 나머지 경기들 역시 가플리언들의 열정적인 참여로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 열정이 넘친 나머지 부상을 입게 된 학생들도 있었지만, 다행히도 전체적으로는 큰 사고 없이 무사히 체육 대회가 끝이 났다.

2022년 경기외고 체육 대회의 최종 우승의 영광은 영일&B에게 돌아갔다. 물론 결과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진행 과정에서 다 함께 쌓은 추억과, 바쁜 학교 생활 중 그날 하루만큼은 공부는 잊고 행사에 몰입한 경험도 모두의 기억에 남을 것 같다. 폐회식 후 반별로, 혹은 과별로 모여 단체 사진을 찍거나 서로 수고했다는 말을 건네는 모습에서 가플리언들의 훈훈한 마음씨를 엿볼 수 있었다. 이번 체육 대회를 위해 고생한 학생회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열심히 대회에 임해준 모든 학생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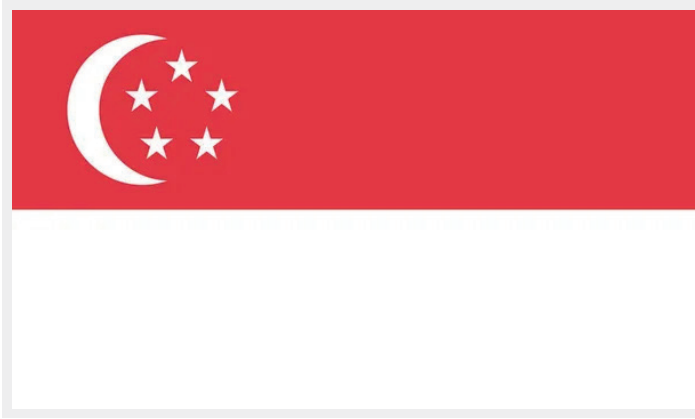
가플리언들의 긍지, Pride of Korea



2022년 5월 4일, 경기외고의 1학년과 2학년은 현장 체험 학습, Pride of Korea를 다녀왔다. 학생들은 오전에는 쓰레기를 주우며 환경 보호에 앞장섰고, 오후에는 자유 시간을 가진 후 왕송 호수에서 레일 바이크를 타며 PK를 즐겼다.

오전에 진행한 쓰레기 정리는 커뮤니티 매핑을 활용하여 진행하였다. 커뮤니티 매핑이란 지역 구성원들이 직접 참여하여 특정 주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여 만들어가는 지도로, 이번 PK에서는 Living Box라는 앱을 통해 무단 투기된 쓰레기를 잡고 기록하였다. 학생들은 조를 구성하여 역할을 나누고 쓰레기 줍기에 임하였다. 거창할 것 없어 보여도 이 경험은 우리가 평소에 무시코 지나치는 쓰레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깨닫고, 실제로 직접 이를 잡고 지도에 추가까지 하면서 가플리언들이 뿌듯함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열심히 커뮤니티 매핑을 한 후에는 자유롭게 점심을 먹고, 왕송 호수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시원하게 바람을 맞으며 레일 바이크를 타는 것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경험이었다. 학생들은 이에 대해 “커뮤니티 매핑에 대해 알게 되어 유익했다”, “레일 바이크를 타는 것이 그날 고생의 보상 같았다”와 같은 반응을 보였다.



GVT TO SINGAPORE

경기외고 학생들이 싱가포르로 GVT를 떠났다. GVT는 Global Vision Trip의 약자로, 경기외고 학생들이 해외로 떠나 외국의 문화를 경험하고 글로벌 인재의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기회이다. 처음에는 행선지로 싱가포르, 일본, 대만의 선택지가 있었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모든 학생들이 싱가포르로 목적지가 고정되었다. 이번 GVT는 19기뿐만 아니라 작년 코로나19로 인해 가지 못했던 18기 학생들도 가게 되었다. 학생들은 싱가포르에 가기 위해 약 6시간 동안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목적지로 결정된 싱가포르는 엄격한 규율로 유명한데, 쓰레기를 길거리에 버리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껌을 씹는 것조차 엄격하게 규제하여 학생들이 주의 깊게 행동하였다. 또 싱가포르는 다민족 국가인데, 대부분의 국민들이 영어, 중국어, 말레이어 등 2개 국어 이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경기외고 학생들이 본인의 외국어 실력을 시험하기 아주 좋은 국가라는 점이 매우 인상 깊었다.

늦은 새벽에 비행기가 도착했고 호텔은 2인실이였다. 호텔 바로 근처에는 식료품점과 편의점이 위치해 있고, 호텔 내부에 수영장과 헬스장 등 여가시설이 잘 구축되어 있었다. 각 반에 한 대의 버스가 제공되었고 또 가이드분들이 친절하게 학생들을 안전하게 인솔해주셨다. 첫날에는 점심에 샤브샤브를 먹고 싱가포르 국립대학 NUS를 경기외고 졸업생 선배님들의 도움을 받아 함께 탐방하였다. 그 후 NUS에 계신 한국인 교수님의 경제학 강의를 청강하였다. 학생들은 강의에 집중하며 질의응답 시간에 열정적으로 질문하는 모습을 보였다. 현지 음식을 파는 레스토랑에서 독특한 향신료 향이 가득한 저녁을 먹은 후 가든스 랩소디 쇼를 관람하였다.

이틀차에는 센토사 섬을 관광하였다. 싱가포르의 산이 한눈에 들어오는 케이블카를 탔다. 그 후 이동하여 게임 '카트라이더'를 현실에 가져온 듯한 루지를 탑승하였다. 루지 탑승 입구까지 상쾌하게 갈 수 있는 스카이라이드도 마련되었다. 센토사 익스프레스 모노레일을 이용해 싱가포르 유니버설 스튜디오에 방문했다. 유니버설 스튜디오는 각종 유명 영화를 테마로 한 놀이기구를 갖추고 있으며 다양한 캐릭터 기념품을 팔고 있었다. 학생들은 모두 만족스럽게 시간을 보냈고 학년 전체가 집합하여 유니버설 스튜디오 정문에 있는 지구본 앞에서 단체사진을 찍었다. 신나게 논 이날 저녁은 무려 한국식 고기 무한 뷔페였다. 학생들은 즐거운 표정으로 고기와 반찬들을 마음껏 가져와 마음껏 먹었고, 그 후 아름다운 스펙트라 쇼를 관람했다.



마지막 활동일에는 호텔 체크인아웃을 했다. 마지막 날에는 비가 내렸음에도 모두 집합하여 국립박물관으로 향했고 길거리에 있는 싱가포르 위인들의 동상을 보았다. 싱가포르의 역사가 담겨있는 박물관은 본래 싱가포르의 법원과 의회 건물이었었는데, 이전하며 박물관으로 변신했다고 한다. 싱가포르는 역사를 중요시하여 한치의 왜곡도 없이 역사를 기록하려 한다는 점이 인상 깊었고, 또 3000년에 개봉할 예정인 싱가포르 타임캡슐도 기억에 남았다. 점심은 한식당에서 순두부찌개와 불고기를 먹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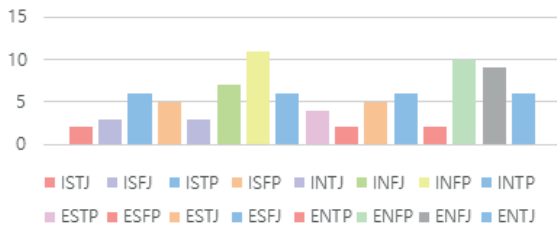
식사 후에는 주룽새 공원에서 여러가지 새가 나오는 쇼를 본 뒤 차를 타고 이동하며 여러 새를 구경하였고, 자유시간을 통해 자유롭게 자신이 좋아하는 새를 구경하러 갔다. 시간이 다 되어 버스를 타고 이동하여 싱가포르의 상징인 머라이언 모습을 한 분수대에 도착하였다. 그곳에서 학생들은 원근법을 활용하여 분수대에 나오는 물을 손으로 받거나 입으로 받는 재치 있는 사진을 남겼다. 마지막으로 밤에 리버보트를 타고 싱가포르의 운치 있는 밤 경치를 즐겼다. 경기외고 학생들은 각 장소에서 사진을 찍거나 기념품점에서 기념품을 사고 면세점에서 싱가포르 특산물을 사 본인만의 싱가포르에서의 추억을 남겼다. 경기외고 학생들은 즐거운 일도 당황스러운 일도 많았던 이번 GVT를 통해 서로가 잊지 못할 추억을 쌓고 글로벌 인재가 되기 위한 보폭 하나를 내딛었다.

2022년도 뚜띠콘서트

5월 19일, 1학기 1차 지필고사가 끝나고 다들 2차 지필고사를 떠올릴 때쯤 뚜띠콘서트가 열렸다. 뚜띠콘서트는 경기외고 학생행정위원회에서 주최하는 콘서트로 여러 공연 동아리와 일반 학생 참가자가 출연하여 마음껏 본인의 실력을 뽐낼 수 있다. 뚜띠콘서트는 5월 19일을 기점으로 목요일마다 3주간 열렸고, 그 날짜는 5월 26일, 그리고 6월 2일이였다.

1주차에는 랩동아리 DTAHWU와 댄스동아리 STEELO가 무대를 선보였다. 2주차에는 SEIREN과 일반인 참가자가 노래를 불렀으며, 마지막 3주차에는 19기 일반인팀이 춤공연을, 밴드동아리 COD가 공연을 하고 뚜띠콘서트의 마침표를 찍었다. 모든 참가자가 열정적으로 준비하여 무대를 완성했으며, 이를 보기 위해 수많은 19기와 18기는 물론 17기 선배님들까지 체육관으로 모여 무대를 구경했다. 뚜띠콘서트에서 참가자들이 본인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과 봉암홀에 모여 앉아 그 무대를 보던 모습은 나중에 두고두고 이야기할 수 있는 추억거리가 된 시간이었다.

가플리언의 모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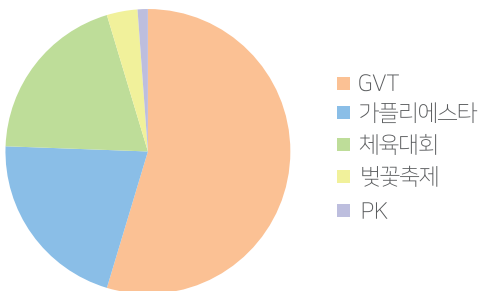
1. 가플리언의 MBTI는?

요즘 학생들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MBTI. 가플리언의 MBTI 분포도를 설문조사를 통해 알아보았다. 결과를 이야기하기에 앞서, MBTI란 기본적인 4가지 선호 경향을 토대로 16가지의 성격유형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가장 많은 유형으로는 INFP, 그다음으로는 ENFP, ENFJ, INFJ가 뒤따랐으며, INTP, ESFJ, ENTJ 유형은 공동 5위, ISTP, ISFP, ESTJ는 공동 8위, ESTP 유형은 11위에 위치했다. ISFJ, INTJ 유형은 공동 12위였으며, ISTJ, ESFP, ENTP는 공동 14위라는 결과가 나왔다.

2. 나만 아는 매점 꿀템! 가플리언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매점 음식 또는 아이템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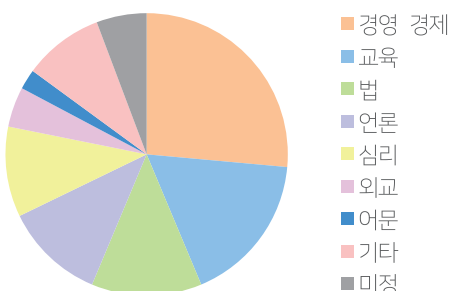
달달한 간식들부터, 든든한 컵밥까지! 다양한 음식들로 가플리언들의 활력소가 되어주는 매점의 꿀템을 설문조사를 통해 알아봤다.

‘초코타임... 제가 먹어본 초코우유 중 가장 정석으로 맛있는 그런 초코우유.. 양도 많은데 생각보다 싼.. 가성비 갑ㅠㅠ’ ‘이번에 새로 들어온 아이스티입니다요. 제로 칼로리라서 다이어트하는 분들께도 편하게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또, 맛도 있더라고요. 저만 아는 줄 알았는데 매점에 들어온 것을 보니 크게 흥하고 있는 듯하여 마음이 아픈 제품입니다.’ 등 숨겨져 있는 자신만의 아이템을 추천해 주는 답변부터, ‘칙촉+오리진 카페라테’, ‘아라리+칠성사이다’처럼 같이 먹으면 더 맛있는 조합을 추천해주는 답변까지 다양한 의견을 들어볼 수 있었다. 이 외에도 피시스낵, 킨더 부에노, 망고 주스, 카구리, 육포 등의 답변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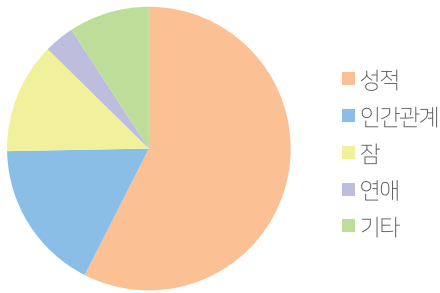
3. 경기외고의 축제 중 단 하나만 참가할 수 있다면 무슨 행사에 가장 참여하고 싶나요?

경기외고에는 체육대회, 벚꽃축제를 포함하여 다양하고 흥미로운 행사가 계획되어 있다. 그렇다면 가플리언들이 가장 선호하는 행사는 무엇일까?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다녀온 GVT(Global Vision Tour)가 53.5%로 1위를 차지했다. 그다음은 경기외고의 연말 축제인 가플리에스타, 체육대회, 벚꽃축제, 그리고 PK(Pride of Korea) 순으로 뒤따랐다. 이 외에도 두드림콘서트, 배드민턴대회, 경기컵 등을 선호하는 학생들 또한 있었다.



4. 가플리언들이 꿈꾸고 있는 진로 분야는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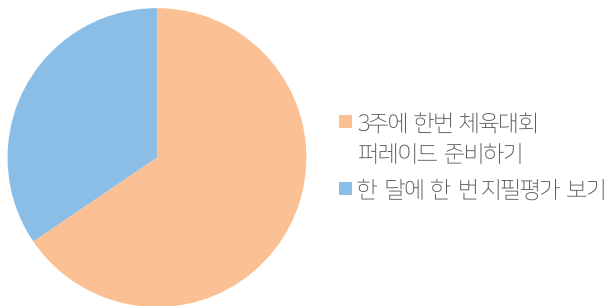
고등학생이라면 모두가 고민하고 또 고민할 진로 문제. 가플리언들이 꿈꾸고 있는 진로 분야는 무엇일까? 우선 1위는 경제/경영 분야로 26.4%를 차지했으며, 2위는 교육(17.2%), 3위는 법(12.6%)이었다. 그 뒤로 언론과 심리학, 정치/외교, 어문이 차례대로 위치하였으며 과학 및 의료 분야를 희망하는 학생들도 소수 있었다. 아직 정하지 못한 학생들 또한 볼 수 있었다.



5. 학교생활을 하다보면 크고 작은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는데요, 지금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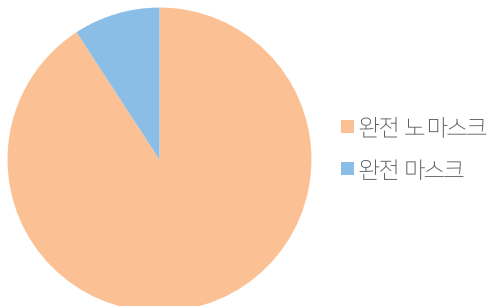
우리는 모두 학교에서 사회생활을 하며, 한정된 시간 속에서 많은 것을 이루어내야 하는 압박감을 가지고 있다. 기숙사 학교인 만큼, 크고 작은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해 나가야 할 때가 많은데, 과연 경기외고 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일까? 예상했던 것처럼, 성적 고민이 1위를 차지했다. 치열한 내신 경쟁 속에서 공부해야 하는 환경이 큰 영향을 미친 것 같다. 그 외에도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인간관계와 부족한 잠이 각 2, 3위의 고민으로 뒤따랐으며, 연애, 돈, 외모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학생들 또한 있었다.

두근 두근 밸런스게임! 과연 가플리언들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은?



1. 3주에 한번 체육대회 퍼레이드 준비하기 vs 한 달에 한번 시험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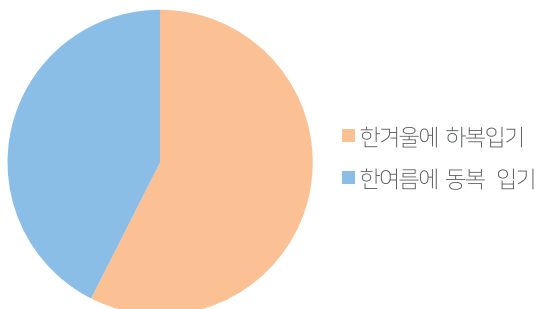
경기외고 학생들은 1년에 한 번씩 같은 과끼리 힘을 모아 체육대회 퍼레이드를 열정적으로 연습하며, 큰 체력 소모를 경험한다. 또한, 학기 별로 1차, 2차 지필고사라는 4번의 큰 시험을 위해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열심히 공부하며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다. 과연 가플리언들은 체력적 한계와 정신적 한계 중 무엇을 더 힘들어할까? 다수의 가플리언들은 아무리 체력 소모가 크다고 한들, 한 달에 한 번 지필 평가를 보는 것 보다는 3주에 한 번 체육대회 퍼레이드를 준비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2. 일주일 내내 항상 마스크 미착용 vs 일주일 내내 항상 마스크 착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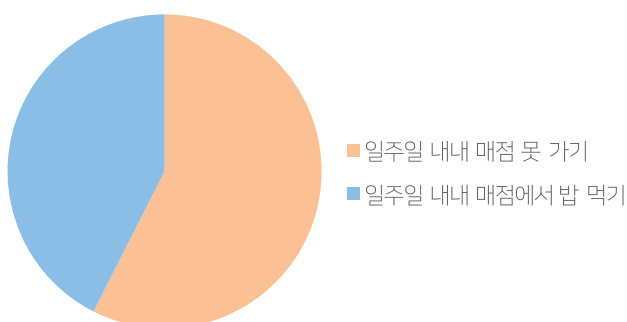
(씻을 때, 잘 때 포함)

코로나19로 인해, 약 3년째 마스크는 우리에게 필수템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 실외 마스크 착용이 자율화됨에 따라 실내에서도 예전보다는 마스크 착용 여부가 자유로워진 경향이 있다. 가플리언의 90.8%는 씻을 때와 잘 때를 포함한 모든 순간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상황보다 무슨 일이 있어도 무조건 벗어야 하는 상황을 더 선호했다.



3. 한여름에 동복 입기 vs 한겨울에 하복 입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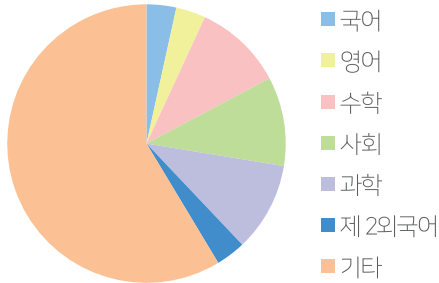
더위와 추위 중 어느 것이 더 견디기 힘들까? 가플리언들에게 이에 관한 질문을 한 결과, 한여름에 동복을 입는 것보다는 겉옷을 입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겨울에 하복을 입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 많았다.



4. 일주일 내내 매점에서 밥 먹기 vs 일주일 내내 매점 못 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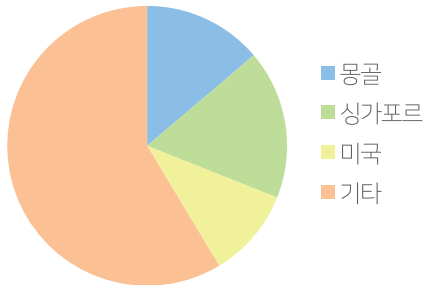
경기외고의 매점에는 과자와 젤리를 비롯한 간식부터, 라면, 컵밥 등 끼니를 대신할 수 있는 음식까지 다양한 메뉴들이 판매되고 있다. 대부분의 가플리언들이 적어도 하루에 한 번씩은 매점에 갈 만큼 경기외고 학생들의 매점 의존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다. 하지만, 과연 일주일 내내 급식실이 아닌 매점에서 끼니를 대신해야 하는 경우는 어떨까? 가플리언들은 일주일 내내 매점에 못 가는 것이 일주일 내내 매점에서 밥을 먹어야 하는 경우보다 조금은 더 낫다고 답했다.

GAFL 선생님의 모든 것



1. 현재 가르치시는 과목 외 다른 과목을 가르치실 수 있다면 어떤 과목을 선택하실 건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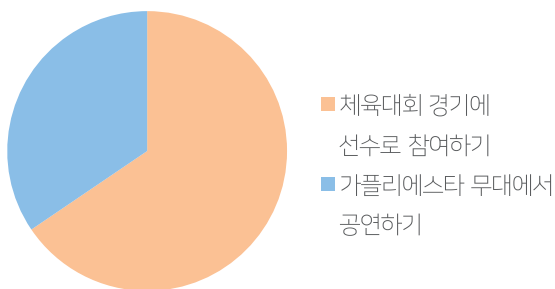
경기외고에는 국어, 수학, 제2 외국어 등 다양한 과목이 존재한다. 이렇게 다양한 과목이 존재하는 만큼, 만약 선생님들께서 다른 과목을 가르치실 수 있다면 어떤 과목을 선택하실지 궁금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가르쳐보길 선호하는 과목을 설문조사를 통해 알아보았다. 수학, 사회, 과학이 각 10%로 공동 1위였고, 국어, 영어, 제2 외국어가 각 3%로 그다음을 따랐으며, 나머지 선생님들은 체육, 음악 등 기타 과목을 선택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선생님들이 가르쳐보길 희망하시는 과목을 파악할 수는 있었지만, 현재 어떤 과목을 가르치고 계시는 선생님이 선택한 결과인지 파악할 수 없었다는 점이 아쉬웠다.



2. 가장 기억에 남는 GVT 장소는 어디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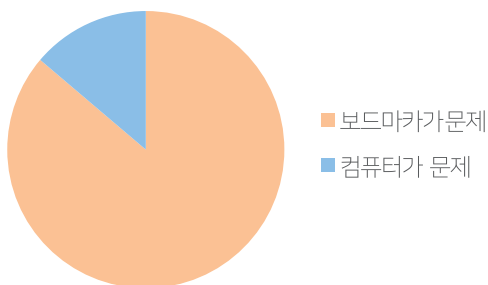
고등학교 생활 중 단 한 번뿐인 수학여행, GVT. 우리 학교는 해외로 떠나 그 나라의 문화를 체험하는 만큼, 특별한 추억을 많이 쌓게 된다. 학생들의 안전과 추억을 위해 항상 동행해 주시는 선생님들께 가장 기억에 남았던 GVT 장소가 어디인지 물었다. 최근에 다녀온 싱가포르가 17%로 1위를 차지했고, 몽골이 14%로 2위, 그다음으로는 미국이 10%로 3위였다. 태국, 피지, 일본, 영국 등 기타 나라를 선택해 주신 선생님들도 많이 계셨다.

GAFL 선생님들의 밸런스 게임



3. 체육대회 경기에 선수로 참여하기 vs 가플리에스타에서 공연하기

경기외고에서는 대부분의 행사들이 학생들의 주도로 진행된다. 학생들이 직접 준비하는 만큼, 학생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한 행사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선생님들의 참여가 적다는 것은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그래서 준비해 보았다. 체육대회 경기에 선수로서 참여하는 것과 가플리에스타에서 공연을 하는 것 중 경기외고 선생님들은 어느 것을 더 선호하셨을까? 결과는 '체육대회 경기에 선수로 참여하기'의 압도적인 승리였다. 66% 대 34%로 2배가 넘는 선생님들이 가플리에스타 무대에서 공연하는 것보다는 체육대회 경기에 참여하는 것이 낫다고 답하였다.



4. 수업 중 보드마카가 안 나올 때 vs 컴퓨터가 문제일 때

금방 닳아 수업할 때면 어느새 흐릿해지는 보드마카와 자꾸 말을 안 듣는 컴퓨터, 모두 수업 진행에 방해가 되는 요소다. 선생님들께 두 문제 중 그나마 나은 상황은 언제인지에 대한 질문을 했다. 결과는 보드마카가 문제일 때가 86%, 컴퓨터가 문제일 때가 14%로,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차라리 보드마카가 안 나오는 편이 낫다는 답변을 해주셨다.

사감장 선생님의

GAFL 생활관 Q&A

Q1. 생활관 선생님으로서 학생들을 지도하시면서 가장 힘든 일은 무엇인가요?

A1. 학생들이 규정을 위반할 때, 그리고 지도교사의 말을 듣지 않을 때가 가장 힘들어요ㅠ

Q2. 수능 응원 이벤트, 크리스마스 이벤트 등 생활관에서 진행하는 이벤트는 어떻게 기획하게 되신 건가요?

A2. 우리 학생들을 조금이라도 더 응원해주고 싶고, 더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는 마음에서 진행하게 되었어요.
반복적인 생활 속에서 많이 지치고 힘들텐데, 이런 이벤트가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면 좋겠어요.

Q3. 생활관 선생님들은 주로 어디서 생활하시나요? 학교에 선생님들을 위한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나요?
선생님들의 하루 일과가 궁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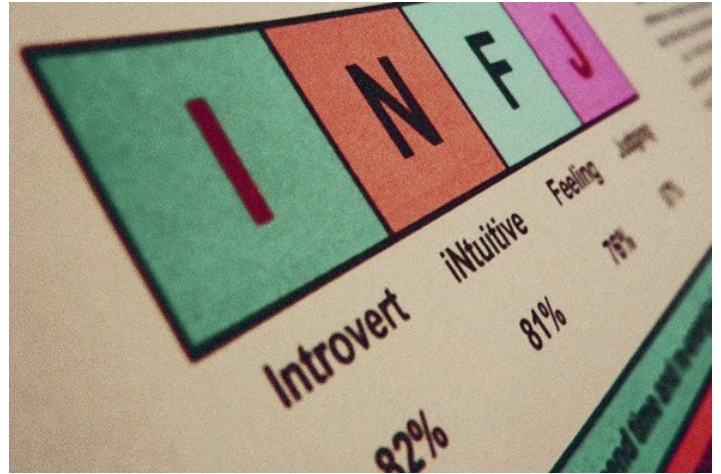
A3. 저와 부팀장님 자리는 본관 행정실에 있고, 다른 선생님들은 생활 지도교사실에 계세요.
저희의 모든 일과는 학생들에게 맞춰서 진행되는데요, 저는 주로 행정실에서 업무를 보고,
다른 선생님들은 주로 기숙사 건물에서 학생들을 지도해주십니다.

Q4.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A4. 사랑스런 경기외고 학생들...!
언제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드릴게요, 앞으로 남은 학교 생활도 힘내요. 화이팅!



MBTI 테스트, 과연 믿을 수 있을까?



MBTI 테스트의 신뢰성

한 번쯤 온라인상에서 MBTI 테스트를 접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는 4가지 특징의 조합으로 사람의 성격을 16가지 유형으로 나눈 검사로, 몇 가지 질문에 대답하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성격유형을 알 수 있다. 10대부터 30대까지 많은 사람이 이 테스트에 관심을 가지며, 자기소개에 이제는 MBTI를 포함하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현재 많은 사람이 MBTI 테스트와 나온 결과를 신뢰한다. 온라인 반응을 찾아봐도 '이거 딱 내 얘기인데?'라고 하며 자신과 성격 유형 설명이 밀접하게 잘 맞는다고 하는 반응이 많다. 하지만 심리학자들은 MBTI 테스트를 의심하며, 사람의 성격 유형을 MBTI와 같이 단순히 나누기는 어렵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이토록 MBTI를 믿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바넘 효과'와 연관되어 있다.

바넘효과의 정의

'바넘 효과'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진 성격이나 심리적 특징을 자신만의 특징으로 여기는 심리적 경향이다. 이름의 '바넘'은 19세기 서커스단에서 일하던 '피니어스 데일러스 바넘'이라는 실존 인물에서 따온 것이다. 바넘은 그 당시에 사람들의 성격을 맞추는 쇼를 진행했었는데, 이는 '바넘 효과'의 정의처럼 사람들의 보편적인 특징을 특정한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뿐이었다. '바넘 효과'는 이를 실험으로 증명한 버트넘 포러 교수의 이름을 따서 '포러 효과'라고도 불린다. 포러 교수는 1948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성격 검사를 진행하였고, 결과지를 나눠주며 결과지와 본인의 성격이 얼마나 일치하는지 평가하도록 했다. 검사는 검사 결과 5점 만점 중 평균 점수는 4.26점이 나왔고 4점 미만의 점수를 준 학생은 단 1명에 불과할 정도로 굉장히 높은 일치율을 보였다. 하지만 사실 포러 교수는 모든 학생에게 같은 분석 결과를 준 것으로, 이로써 바넘 효과가 증명되었다.

바넘효과를 일으키는 표현들

MBTI 테스트에서 바넘 효과가 일어나는 이유는, 검사 결과지에 쓰인 표현들 때문이다. '때로는', '종종', '가끔은', '어떤 때는'와 같이 일시성을 나타내는 표현이나, "~하는 편이다.", "~하는 경향이 있다."처럼 끝을 막연하게 맺는 표현들은 바넘 효과를 일으킨다. 또한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지만 종종 개인만의 시간도 필요하다.'와 같이 반대되는 특성을 나열하는 것도 바넘 효과를 일으키게 된다.

우리의 일상 속 바넘효과

바넘 효과는 MBTI 테스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오늘의 운세', 별자리 운세, 타로점, 혈액형별 특징과 같이 다양한 심리, 운세 테스트와 유사 과학에서 사용된다. 또한 마케팅을 하는 데에서도 광고 멘트에 바넘 효과를 일으키는 표현을 적용하여 자신에게 꼭 필요한 제품인 것처럼 느끼게끔 바넘 효과가 적용된다. MBTI 테스트와 같은 심리검사는 아예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검사 결과를 통해 자신의 성격의 한 부분을 알게 될 수도 있고, 사람들과 자신의 성격을 소개할 때 사용되는 소통의 수단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하지만 바넘 효과를 알게 된 이상 검사 결과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고 자신을 한가지 틀에 가두지 않은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수리남...

영화는 영화로 보는 게 맞을까?



최근 전 세계의 플랫폼에서 큰 인기를 누리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수리남'이 법적 문제로 이슈가 되고 있다. 수리남의 외교 장관이 넷플릭스 시리즈 '수리남'에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4일 수리남의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알버트 람딘 외무 장관은 지난 13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수리남은 수년간 마약 운송 국가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지만 우리는 더 이상 그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즉, 영화 속 수리남이 부정적으로 그려져 '마약국가'라는 이미지로 각인되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남미 국가 수리남을 장악한 마약 대부 이야기를 다룬 '수리남'이 자국을 부정적인 시선을 바라보게 하고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이슈가 계속 언급될수록 수리남 드라마에 관한 법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영화는 하나의 트렌드를 생성시키고 많은 대중들에게 보여지며 특히 OTT 플랫폼을 통한 영상물이기에 영향력도 상당하다. 그럼에도 논란이 될 수 있을만한 이슈를 주제로 선정해 드라마를 제작하는 것을 불편하게 바라보는 대중들이 늘어나고 있다. 반면, 영화는 말 그대로 하나의 'fiction' 이기에 수리남의 법적 대응이 무리하다는 의견 또한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를 보고, 자극적이고 민감한 소재를 영향력이 큰 영화에 담아내는 것은 신중한 고려가 필요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다. 작년,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이끈 '오징어 게임' 또한 하나의 예시이다. 오징어게임은 플랫폼을 통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다. 또한, 영화에 등장한 한국의 전통놀이와 간식이 주목을 받으며, 외국인들이 한국을 긍정적이고 쾌활한 나라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처럼 영화와 드라마는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밖에 없고 시선이 집중되는 등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영화 소재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많은 회의와 신중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뉴스, 어디까지가 진실인가?

뉴스는 사람들에게 정확한 사실을 전해주는 한 매개체로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뉴스 형태를 띄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 사실이 아닌 거짓 뉴스는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조작되거나 거짓 정보를 유포한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언론매체로서 그 뉴스를 접하는 사람들을 혼란에 빠지게 만들 수 있다. 또한 많은 이들에게 혼란을 줄 경우에는 사회 전체에도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러한 거짓뉴스의 심각성은 요즘 코로나 상황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유튜브 개인 방송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한 가짜뉴스를 퍼뜨린 10대 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16)군과 B(37)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그는 '오늘 태국 여행을 다녀온 40대 아주머니가 16번째 확진자라고 나왔는데 가짜뉴스라며 '실제로는 16번째 확진자는 12살 초등학생'이라고 방송 자막을 통해 허위 내용을 퍼뜨렸다. A군은 또 '27번째 환자는 잠실에서 발생했고 16번째 환자로부터 옮았다'는 가짜뉴스도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경찰에서 "관심을 받고 싶어서 허위 내용을 알렸다"고 진술했다.(출처 : 연합뉴스) 이러한 허위 사실유포는 엄연히 범죄이고, 예민한 코로나 시대에는 특히나 조심스러운 주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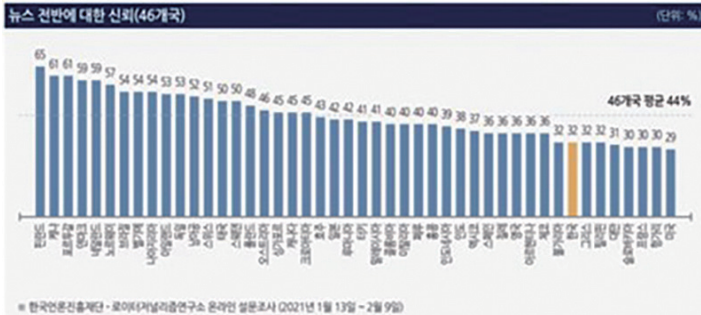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기사 중 하나는 "틱톡에서 보는 뉴스"이다. 과거 뉴스는 언론보도를 통해서만 볼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시공간 제약 없이 뉴스를 접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인터넷의 발달로 뉴스의 전달이 빨라진 만큼, 허위사실의 유포도 쉬워졌다. 최근 8월 13일 미디어 오늘 기사에 따르면 짧은 동영상 플랫폼 '틱톡'이 새로운 뉴스 플랫폼으로 떠오르면서 허위정보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틱톡은 일반인 제공 비중이 높고 허위사실 유포에 있어 취약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달 5일 틱톡의 허위정보의 유포가 보건 이슈에 있어서 심각하다고 전했다. 틱톡 영상에선 금발의 남성이 "경구피임약을 복용하면 성적 매력의 변화가 생긴다"라고 주장한다. 남성은 경구피임약에 들어있는 '스테로이드' 성분을 문제 삼는다. 진지한 표정으로 손짓 발짓과 함께 전문용어를 섞어가며 위험성을 경고하며 카메라에 대고 눈을 보며 말하니 진짜 같다. 하지만 '가짜뉴스'다. 또한 국내에서도 틱톡 허위정보가 논란이 됐다. 지난달 23일 '축구선수 메시가 사망했다'는 틱톡 영상이 퍼졌다. 허위정보였지만 트위터 등 다른 플랫폼으로 확산되며 혼선을 빚었다. 국민일보, 조선일보 등 언론이 '허위정보'라고 정정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건국대 교수는 "누군가 직접 스피치 형태로 전달하면 그 신뢰도가 높아진다. 더군다나 틱톡은 가공된 숏폼이므로 출처가 빠지기 쉽다"고 언급하였다.

틱톡과 같이 전 세계 사람들이 즐겨 보는 플랫폼의 정보 전달 영향력은 매우 크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틱톡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여러 사이트에서 허위 정보 유포가 일어나고 있다. 정보 전달자는 책임을 가지고 건전한 언론 소통망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



한국 언론의 문제점과 고질적인 병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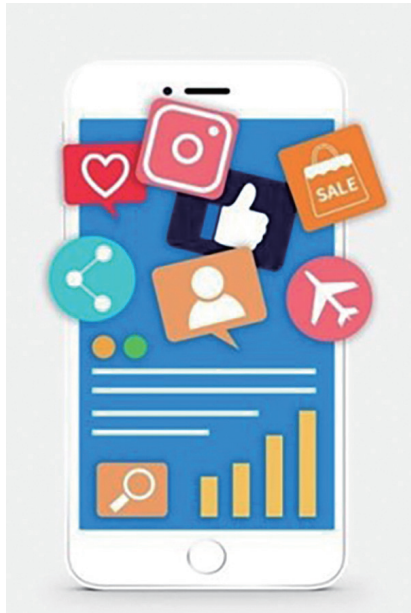
한국 언론은 다양한 문제점과 고질적인 병폐가 있다. 국민은 언론을 믿지 않는다. 46개국을 대상으로 뉴스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뉴스 신뢰도가 가장 높은 국가는 핀란드(65%)였으며, 가장 낮은 국가는 미국(29%)이었다. 우리나라는 32%로, 평균 44%와 10%p 이상 차이가 났다. 이는 대한민국의 뉴스 신뢰도가 전 세계 국가들 중 하위권에 속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 주요 15개 매체에 대한 신뢰도 조사에선 YTN이 56.4%로 1위, JTBC가 54.86%로 2위, MBC가 52.8%로 3위를 기록했다. 한국 언론들은 왜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할까? 그 이유는 좌우 이념성향이 강한 언론들이 다양한 시선을 담지 못하고 자기 입맛에 맞는 기사만 쓰기 때문이다. 하나의 정치성향으로 국민에게 편협한 시각을 제공하고 강요하는 것은 하나의 폭력이다. 우리는 보수와 진보 모두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권리가 있지만 현실에서 보수주의자들은 보수 언론들만 고집하고, 진보주의자들은 진보 언론들만 바라본다는 것이 밝혀졌다. 보수와 진보 중 일방적으로 나쁜 정치성향은 없고, 서로 편을 가르는 것은 무의미한데 말이다. 그리고 한국 언론의 또 다른 문제점은 자료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기사 작성을 위해 참고했던 원본 기사, 자료, 통계, 발언 출처, 관련 보도자료 등의 원본 소스가 있는 곳을 외부 사이트라고 하는데 외부 사이트에서 가져온 자료를 하이퍼링크 없이 게재했을 경우는 언론의 투명성이 흐려진다. 그러므로 언론의 투명성과 맥락 저널리즘을 고려하여 자료를 게재할 때는 하이퍼링크를 삽입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 언론이 보도하는 뉴스에는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상당하다. '관계자에 따르면'이라고 표기하더라도, 실제로 관련이 있는 인물인지 아닌지는 오로지 기자의 양심에만 의존하기 때문이다.



뉴스를 읽는 독자들은 기사가 근거로 내세운 통계와 데이터가 신뢰성이 있는지, 인용한 외신 기사를 제대로 번역했는지 모른다. 그저 기사이니, 대형 언론사이니 믿고 읽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정보의 독점화와 투명성을 위해 필요한 것이 하이퍼링크이다. 기사 본문에 있는 링크를 통해 원본 소스를 독자들이 직접 확인하면 기사가 아무리 진실을 왜곡해도 속지 않는다. 또한, 다양한 정보를 링크로 제공하면 기사가 작성한 기사 한 편으로는 알 수 없는 사건의 전체적인 맥락도 이해하기 쉽다. 요약하면 한국 언론의 고질적인 병폐는 선정적이고 상업적이고 정치적이고 일방적이며 편파적이라는 것이다. 과거 어두웠던 군사정권 시절에는 정부의 부정부패를 알아도 쓰지 못한 기사들이 많았다. 정부가 언론을 통제했기 때문이다. 요즘은 이러한 문제가 심화진 않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고질적인 문제들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불

과 몇 년 전부터 온라인 매체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정보 과잉 시대가 도래했고, 이 때문에 굳이 알 필요 없는, 정제되지 않은 뉴스들이 무차별적으로 온라인을 타고 스마트폰으로 노출되고 있고, 더 많은 조회 수를 유도하기 위해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제목의 뉴스들이 포털이나 언론사 홈페이지의 메인화면을 장식하고 있다. 한국 언론의 이러한 고질적인 병폐들이 하루아침에 없어지진 않겠지만 언론이 투명성과 신뢰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면 언론의 병폐들이 점차 사라질 것이라고 예상된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활성화”... 민주시민을 향한 걸음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 지구적인 확산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교육 환경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이 전국적으로 실시되었고, 끊임없는 혼란과 시행착오 속에서도 비대면 수업이라는 새로운 교육 플랫폼이 점차 일상화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개인들의 일상이 온라인 공간을 통해 급속히 확장됨에 따라 이로 인한 부작용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온라인에서 유포되는 허위조작정보가 여론을 왜곡하고 사이버 폭력이 확산되는 등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개인미디어의 역기능이 우리 사회의 새로운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에서 유포되는 다양한 정보들을 이용자들이 유용하게 활용하고 소비하도록 하는 방법들을 알려주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 교육의 목적은 매스 미디어의 본질과 기술, 목적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특히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텔레비전이나 영화, 신문 또는 잡지 등을 제대로 감상하고 선별하며, 비판적인 독자, 시청자, 수용자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전인적인 인격향상과 자주적인 자아실현의 기회를 기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교육의 노력이 부족하다면 미디어가 폭력이나 위협의 형태로써 인간성을 마비시키는 흉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언택트 시대에 발맞추어 더 효과적이고 시의성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과제를 안게되었다.

우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선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른 학생의 필요와 요구가 핵심 교육내용으로 선정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 학생 중심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정이 설계되어야 한다. 학교급의 단계에 따라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 내용을 위계적으로 반영하여 미디어 교육의 연속성과 연계성을 실현하거나, 성별에 따라 학생들의 요구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접근방식을 달리하여 보다 효과적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중점 교과 중심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추진함으로써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중점 교과를 중심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수업 자료와 콘텐츠를 개발, 보급하여 전체 교과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전반적 방향을 인지함은 물론, 점진적으로 교과의 특성에 맞게 재구성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사회 이슈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이나 의견을 발의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과정에 직접 참여해보는 경험을 중심으로 미디어 소통 역량을 사회 교과에 연결짓거나, 혹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거나 의미를 이해하는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소통 방식에 따른 교육을 국어 교과와 연결시킬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수업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자료의 제작과 이러한 자료의 공유가 손쉽게 활용될 수 있도록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온라인 플랫폼의 구축과 체계적 운영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필요할 것이다.

미디어의 양면적 특성을 이해하고 콘텐츠의 공정성, 정확성 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더 나아가 자신의 판단을 기반으로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지의 문제는 결국 콘텐츠 수용자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이에 관한 교육과 훈련은 당위적으로 매우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의 지식과 정보는 특정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다르게 경험되고 인식된다는 점을 고려해 더욱 활성화된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을 실시하여 문화 간 대화를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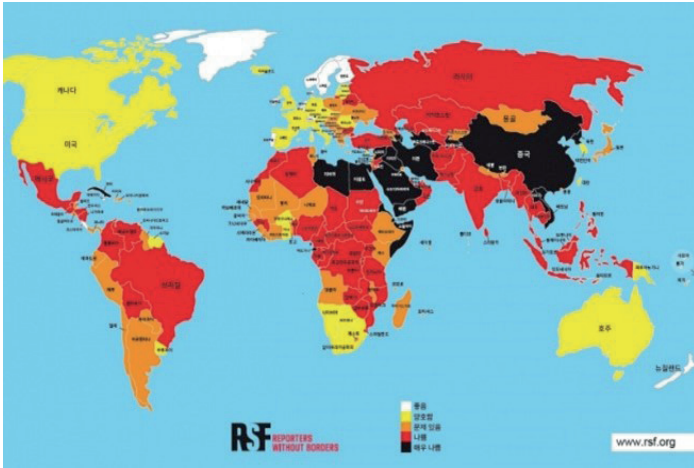
빅데이터, 4차 산업혁명의 언어



우리는 뉴스나 책 등 여러 일상 매체에서 흔히 '빅데이터'라는 단어를 볼 수 있다. 빅데이터라는 단어에 연상되는 이미지는 첨단 기술, 정보화 시대 등이 있으며 AI와 같은 최첨단 기술과 쉽게 접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세계 경제 포럼이 2012년 떠오르는 10대 기술 중 첫번째로 꼽을 만큼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소재로 각광받고 있다. 빅데이터는 데이터 베이스 등 기존의 데이터 처리 응용 소프트웨어로는 수집 · 저장 · 분석 · 처리하기 어려울 정도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의미한다. 빅 데이터의 공통적 특징은 3V(Volume, Velocity, Variety)로 설명할 수 있다. 즉, 다량의(Volume) 다양한(Variety) 정보를 빠르게(Velocity) 처리하는 것이다. 이 초대형 데이터에서 가치를 발견하고 또 결과를 분석하는 것이 핵심적 기술이라고 볼 수 있다. 이용 사례로, 기업 아마존은 모든 고객들의 구매 내역을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하고, 이 기록을 분석해 소비자의 소비 취향과 관심사를 파악한다. 이런 빅 데이터의 활용을 통해 아마존은 고객별로 추천 상품을 표시한다. 고객 한사람 한사람의 취미나 독서 경향을 찾아 그와 일치한다고 생각되는 상품을 메일, 홈페이지상에서 고객 한사람 한사람에게 집중하여 자동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아마존의 추천 상품 표시와 같은 방식으로 구글 및 페이스북도 이용자의 검색 조건, 나아가 사진과 동영상 같은 비정형 데이터 사용을 즉각 처리하여 이용자에게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는 등 빅데이터의 활용을 증대시키고 있다. 이렇게 빅데이터 활용 기술은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의료, 마케팅, 기후, 사회, 과학 등 모든 분야에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점은 존재한다. 아직까지는 자동적으로 데이터 분석의 방법과 결과를 선택하거나 해석하고 활용하는 의사 결정은 대부분 인간의 몫이다. 같은 데이터에 대해서도 사람에 따라 그것들은 달라질 수 있고, 그에 따라 결과도 변한다. 빅데이터는 우선적으로 과거와 현재의 패턴을 분석하는 것에 기반을 두므로 미래 환경이 크게 바뀌면 활용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단점도 존재한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가장 크게 직면한 문제는 사생활 침해와 보안이다. 빅데이터는 수많은 개인들의 정보로 이루어진 집합이기에 데이터를 수집할 때 그들의 사적 정보까지 수집하여 관리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모아진 데이터가 유출되는 것은 거의 모든 사람들의 정보가 유출되는 것이라 봐도 무방하기에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실제 샤넬 코리아에서 개인정보를 부실하게 관리하여 해킹을 통해 고객 8만명 이상의 전화번호, 주소가 유출된 사례가 있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당사에 무려 1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할까? 이미 고도의 정보화사회에 돌입하여 그것에 적응한 사람들에게 악용 가능성만을 근거로 정보를 포기하는 것은 벼룩 잡으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다. 우리의 발전에는 필연적으로 정보가 있어야한다. 우선 우리는 당면한 문제인 개인정보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한다. 회원가입을 할 때 이용약관을 자세히 읽어보는 등의 개인의 노력이 필요하며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강화된 대책이 필수적이다. 이 문제에 대해 추상적 기준으로 이루어져 있는 현 사법체계에서 개인정보침해는 그 피해에 비해 대응 법안이 부족하다. 정보보안기술 자체의 개발도 중요하지만 체계적인 보안전략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견해가 다수 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안일한 태도를 취하지 않고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는 사회적 노력을 통해 '빅데이터'와 '빅브라더'라는 양면성에 대비해야 한다. 같은 것을 들고도 다르게 활용하여 누구는 손해를, 누구는 조금의 이익을, 누구는 엄청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단순 데이터 조작에 지금 우리는 돌보기를 두고 봐야할 순간이 왔다.



세계의 언론 자유 지수, 한국은?

언론 자유 지수는 평가 기관의 언론의 자유 점수를 국경 없는 기자회가 집계하여 매년 각 국가별 순위로 발표하는 자료이다. 이 보고서는 국경 없는 기자회가 발송한 설문 항목을 국경 없는 기자회의 협력기관과 전 세계의 130명의 특파원, 언론인, 연구원, 법률 전문가와 인권운동가 등이 작성한다. 이 설문조사는 언론인과 미디어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과 언론의 자유에 대한 간접적인 압력에 대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것만 다루며, 저널리즘의 질에 대한 평가는 하지 않기 때문에 지수를 발표하는 것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한다. 개개인의 이해에 근거한 설문조사 방법의 특성으로 인해, 해마다 국가의 순위에 대한 광범위한 비교가 이루어지고 있다. 낮은 점수를 가진 국가일수록 더 높은 언론 자유도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된다. 그렇다면 한국의 언론 자유 지수는 어떨까?

2022년의 세계 언론 자유 지수 순위에서 한국은 지난해인 2021년보다 한 단계 하락한 43위를 기록했다. 한국의 언론 자유 지수 순위는 노무현 정부이던 2006년 31위까지 올랐다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70위로 크게 떨어졌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63위에서 2018년 43위로 상승한 뒤 2019년 41위, 2020~2021년 42위로 상위권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국경 없는 기자회는 한국, 호주, 일본은 거대 기업 집단이 미디어에 대한 지배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배력은 언론인과 편집국의 자기 검열을 부추긴다고 이야기하며 현재 한국 언론 상황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한국의 언론 자유 지수는 180개국 중 상위권에 속하지만 이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며, 주어진 자유를 잘 활용하고 있는지도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선거운동 때의 기사들과 해당 기사를 보도한 언론매체를 보면, 대부분은 아주 쉽게 해당 기사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을 만큼 편향적이며, 개별적 이익에 치우쳐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은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한국의 언론 자유 지수 뿐만 아니라 한국 언론이 보장된 자유만큼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으로 힘들어지는 마음,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코로나 19가 확산되면서 심리적인 변화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겪는 심리적인 변화에는 생활적인 측면에서는 병에 걸려 죽어가는 것에 대한 공포, 직장에서의 해고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등이 있다. 그리고 격리 중에 생기는 심리적인 변화에는 일할 수 없어 생계 수단을 잃는 것, 격리 중 무력감/지루함/외로움/우울감 등을 느끼는 것과 같은 것들로 인한 스트레스 반응이다. 추가로 간호사, 의사 등과 같은 최전선 근무자는 더한 스트레스를 받아 더욱 큰 심리적인 변화를 겪기도 한다.

코로나 상황에서의 대표적인 심리 변화에는 코로나 블루가 있다. 코로나 블루란 '코로나19'와 우울감을 뜻하는 단어인 'blue'가 합쳐진 신조어로, 코로나 19 확산으로 일상에 큰 변화가 생기면서 나타난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을 뜻한다. 이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감염병에 걸리지 않을까 걱정하는 마음, 사회적 거리 두기 때문에 모임을 자주 갖지 못하고 외출을 못해서 생기는 답답한 마음, 경기가 나빠지면서 경제적 손실이 커져 생기는 분노감 등 때문에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코로나 이후 우울 위험군이 코로나 이전에 비해 5배 늘어났고 자살을 고려하는 사람의 수는 전보다 3배 늘어났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보호하는 심리 방역에 힘써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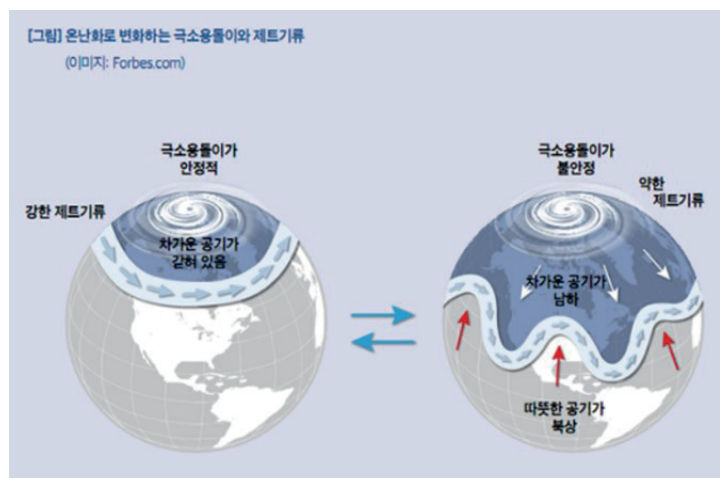
심리적으로 건강한 코로나 시기를 보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우선 '불안'이라는 감정을 인정해야 한다. 억지로 불안을 숨기거나 줄이려고 애쓰는 것은 오히려 불안을 더 자극해 마음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 불안의 감정을 부정하고 숨기면 오히려 다른 방향에서 표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인정하고 건전하게 해소할 방법을 생각해봐야 한다. 두 번째로, 정확한 정보를 필요한 만큼만 얻어야 한다. 인터넷에는 검증되지 않은 허위 정보들과 불필요한 불안감을 자극하는 자료들이 넘쳐나고 있다. 이렇게 사소한 뉴스를 찾는 데 지나친 에너지를 쓰며 매달리는 것은 통제감 대신 오히려 불안과 부작용을 키울 수 있다. 세 번째로, 규칙적인 생활습관을 실천하는 것이다. 인간의 몸에는 한계가 있고,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하다. 체육관, 수영장 등을 방문할 수 없더라도 집에서 간단한 운동이나 스트레칭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네 번째로, 가족, 친구, 동료와 소통하며 힘든 감정을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한 우울감이나 무기력함이 심하다면 보건소와 건강복지센터에서 진행되는 심리 지원을 받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을 실천하여 몸도 마음도 건강한 코로나 시기를 보내보자.

계속해서 추워지는 날씨, 그 원인은?

11월임에도 불구하고 영하에 다다른 이 추위는 왠지 작년에 비해 더 일찍 찾아온 것 같은데요, 점점 추워지는 날씨의 원인이 바로 지구온난화라는 것, 알고 계셨나요? 지구온난화란 넓은 의미에서 장기간에 걸쳐 전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구온난화는 극단적인 기온, 기상이변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10월 17일에 서울의 최저 기온이 1.3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추위는 64년만에 처음이라 일반인들은 지구의 기온은 올라가고 있는데 반해 왜 날씨는 점점 추워지는지에 대한 의문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의문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인물이 전 미국 전 대통령인 트럼프입니다. 트럼프는 재임 당시인 2018년 11월 22일 미국 동부의 기록적인 한파 소식을 전하면서 “잔혹하고 매서운 추위가 모든 (한파) 기록을 깰 수 있다”며 “지구온난화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라고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그러자 네덜란드 기후 전문가 뵐렌은 “트럼프 대통령이 기후(지구온난화)와 날씨(한파)를 혼동했다”하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영국 기상학자 토빈은 “지구온난화는 지구가 뜨거워지는 것”이라며 “지구온난화는 지역에 따라 극단적인 날씨를 초래해 뉴욕시는 가장 추운 추수감사절을 보내겠지만, 북극해 라플란드는 이상 고온으로 눈이 없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기상학자의 설명에 따르면, 때 이른 추위도 지구온난화의 결과라고 합니다. 최근 지구온난화로 북극 온도가 상승해 중위도와 대기의 온도 차가 줄어 북극 상공의 제트기류가 약해졌습니다. 이 제트기류는 쓰러지려는 팽이처럼 회전반경을 한반도가 있는 북반구 중위도까지 넓혀 파형을 그리며 북극 주위를 돌게 됩니다. 제트기류가 남하하고 이어 차가운 극소용돌이가 중위도로 내려오며 따라 시베리아의 한기가 한반도로 유입돼 때 이른 겨울 한파가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추워지는 날씨를 마주해야 하는 것일까요? 지구온난화를 예방한다면 여기서 더 추워지는 날씨를 막을 수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의 예방법에는 ① 자동차 이용 줄이기. ② 실내 적정 온도 유지하기(냉난방기를 사용하면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도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미칩니다. 더운 여름엔 실내 온도를 아주 낮게 설정하거나, 추운 겨울엔 아주 높게 설정해 냉난방기가 과하게 쓰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③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음식물 쓰레기가 분해될 때 온실가스가 배출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음식물 쓰레기 배출을 나부터, 우리 가정에서부터 조금씩 줄인다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가 있습니다.



더 잘 살기 위해, 데스카페



죽음은 많은 사회에서 오랫동안 금기로 여겨져 왔다. 죽음이 주변 사람에게 혹은 나에게 다가올 때 사람들은 좌절하고 슬퍼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피해 갈 수 없는 죽음은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에서 흔치 않은 일이 되었고, 사회구조의 변화뿐만 아니라 죽음에 대한 인식도 바뀌고 있다.

‘데스카페’란 무엇일까? 데스카페란 죽음을 이야기하고 죽음을 준비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공간이다. 맛있는 차와 디저트를 즐기며 죽음을 일반적인 주제처럼 다루며 느슨한 분위기에서 가볍게 대화한다.

데스카페의 첫 모임은 2011년 영국 런던의 존 언더우드와 친구 여섯 명을 자택으로 부른 것이었다. 스위스 사회학자 버나드 크레타즈가 제창한 ‘카페모르텔’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데스카페’라는 이름도 붙였다. 이 모임의 취지는 “죽음을 삶의 마지막 단계로 받아들이고, 좋은 마무리를 위한 활동을 하자”는 것이다. 이후 언더우드는 누구나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커뮤니티를 만들어 ‘맛있는 디저트 준비하기’, ‘비영리’ 등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죽음에 대해 말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는 우려를 깨고 데스카페는 빠르게 확산되었다.

데스카페의 가장 큰 특징은 느슨한 분위기이다. 참가하는 이들은 대부분 초면이고 아무도 대화를 강요하지 않기에 내성적인 사람도 가족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죽음에 대한 불안과 의문을 솔직하게 털어놓는다. 처음 데스카페를 열어본 개최자는 티슈를 몇 통을 준비했지만 실제로는 웃음소리가 더 많이 들렸다고 한다. 아시아의 경우 다사(多死)사회에 단계에 들어선 일본에서 데스카페 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데스카페는 상당히 세분화 되어 있는데,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에 대해 말하는 ‘철학계’, 소중한 사람을 잃은 아픔을 공유하는 ‘슬픔치유계’, 워크숍을 통해 죽음을 생각하는 ‘워크계’ 등 다양한 데스카페가 전국에서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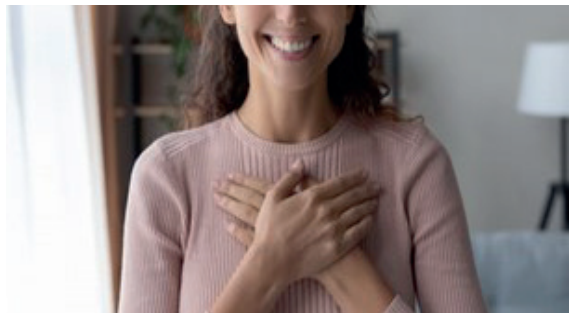
일본의 데스카페에 세 번 참석해 본 H씨는 모임이 끝나면 활기찬 마음이 든다고 한다. 그가 데스카페에 참가하게 된 계기는 암의 재발 때문이었고 그는 자연스럽게 죽음에 대해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가족에게 말한다면 걱정을 주게 될 것이고 암 환자 카페에서 죽음은 금기의 주제였다. 반면에 데스카페는 상대방의 죽음에 대한 공포를 공감하되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자유로운 분위기이다. 그렇기에 H씨는 죽음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생각을 정리하고 좋은 결론에 다다를 수 있었다.

살아가는 데 있어 죽음이란 막을 수 없는 존재이기에 두려워만 한다면 불행하게 살아갈 수 밖에 없다. 그렇지만 우리가 죽음이라는 주제에 마음을 열고 두려움에 저항한다면, 죽음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자연스러워질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데스 카페라는 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

자존감, 나로 살아갈 용기



요즘 과거와 비교하면 눈에 띄게 심리 관련 프로그램들이 늘어났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심리학이 가장 먼저 발달한 대륙은 유럽이다. 유럽은 산업혁명이 가장 먼저 일어난 곳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 제도와 기반시설을 정비하며 도시화를 이뤄내었다. 그 과정에서 사람들의 삶은 안정화되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자 더욱더 윤택한 삶을 위하여 정신건강에 관심을 두기 시작한다. 이로 인해 심리학이 유럽에서 가장 발달하였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심리에 관심을 두기 시작한다는 것은 물질적으로 풍요롭다는 것의 방증이기도 하다. 이러한 현상은 대부분 선진국에서 많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 역시 선진국이고, 물질적으로는 예전과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요로워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의 심리에 관한 관심이 올라가고, 심리 관련 프로그램들이 양산되는 것이다. 그 예로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 '금쪽같은 내 새끼', '자존감 수업' 과 같은 프로그램과 책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모두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는 방안과 자신의 내면의 힘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들이다. 우리나라는 현재가 되어서야 사람들이 자신의 심리에 대해 관심을 두게 되었다. 그전까지는 우리나라의 혼란스러운 상황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살피는 것은 사치였다. 그저 열심히 달리기 바빴고,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것이 급급했다. 우리는 마음에 신경 쓸 '겨울'이 없었다. 하지만 이제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고, 그동안 치유하는 것을 미뤄왔던 자신의 상처들을 직면하고 치유하여 더 나은 삶의 질을 충족하기 위해 사람들이 심리에 관심을 두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마음을 치유하고, 건강한 마음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 마음을 치유하는 방법에는 가장 대표적으로 심리상담이 있다. 심리상담의 목적은 일련의 상담으로 단순히 내담자의 자존감을 일시적으로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상담을 받은 이후로도 내담자가 스스로 내면의 힘을 키워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데 있다. 즉, 계속하여 내담자가 정신적으로 건강할 수 있도록 일종의 정신 면역 시스템을 장착시켜주는 것이다. 정신 면역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높은 자존감이 필수조건이다.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 수 있고, 진짜 나의 모습을 찾아가고 그 모습을 실현할 수 있다. 그럼 자존감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향상할 수 있을까? 자존감은 사전적 정의로 '스스로 품위를 지키고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을 말한다. 즉,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타인과 비교하지 않는 것이다. 타인과 나는 비교하지 않는 것이 좋다. 특히 온라인이나 sns에서 만난 사람들은 더더욱 자신과 비교하면 안 된다. 질 게 뻔하기 때문이다. 그건 현실과 판타지의 싸움이다. 남들과 비교하는 대신 자기가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바라는 나의 모습이 있고, 기준을 세울 때, 타인을 기준으로 삼지 말고 나를 기준으로 삼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하고, 이를 통해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을 정할 때는 나에게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이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파악한 후 자신의 목표를 정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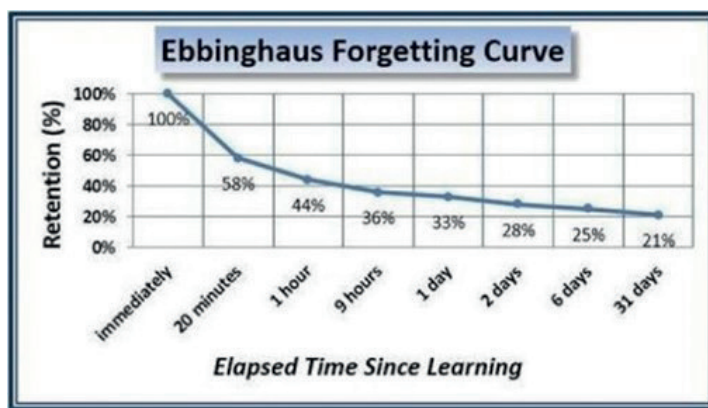
두 번째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믿음에 도전하여 그에 반박하는 근거를 생각해보는 것이다. 마냥 부정적으로만 보이는 것도 객관적인 시선으로 3인칭에서 바라보면 달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위기는 위험과 기회의 합성어라는 말이 있듯이 위기처럼 보이는 상황도 기회가 될 수 있으니 객관적이고 긍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상황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면 자존감을 키우는데 좋은 훈련이 될 것이다. 이러한 훈련을 계속 반복하고, 습관화하여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든다면 건강한 심리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심리 프로그램이 생산되고 심리에 관한 관심이 늘어나는 요즘, 우리 모두 진짜 나를 마주할 용기를 가지고 자신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어 보는 것은 어떨까?

데려야 댈 수 없는, 기억과 공부

국어부터 사회, 영어, 중국어와 일본어까지, 경기외고에서 공부는 암기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험이 다가오면, 많은 학생들은 ‘한 번만 읽어도 다 기억에 남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모두 알고 있듯이, 하루아침에 나에게 천재적인 기억력이 생길 가능성은 드물다. 방대한 시험 범위에 끝없는 암기가 막막하다면, 사람들이 정보를 기억하는 과정과 왜 잊어버리는지에서 해답을 찾아보자.

먼저 기억의 과정은 부호화, 저장, 인출로 이루어져 있다. 부호화는 시각, 청각, 공간 등의 감각 정보를 해마에 저장하는 것이고, 저장은 일정 기간에 걸쳐 정보를 유지하는 것이다. 인출은 부호화와 저장을 거친 기억을 다시 의식하는 것으로, 기억을 꺼내올 만한 단서가 주어졌을 때 일어난다. 기억의 종류로는 크게 감각기억, 단기기억, 장기기억 등이 있다. 감각기억은 정보가 감각 기억을 통해 저장된 것으로 수 초간 지속되고, 단기기억은 감각기억 중 주의를 기울인 것으로 수 초에서 1분 이내, 약 20초에서 30초 정도 지속된다. 장기기억은 인출을 위해 비교적 오래 저장되는 기억으로, 수 일에서 수년간 저장된다. 장기기억은 다른 기억과 연결되어, 추론이나 재구성을 거쳐 인출되는 경우가 많다.

기억의 과정이 생각보다 상세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망각이 너무나 자주 일어난다고 느낀다. 망각을 설명하는 여러 이론 중 하나는 소멸이론이다. 기억은 시간이 지날수록 사라진다는 이론으로, 시간과 기억의 관계에 대해 설명해주는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이 대표적인 관련 개념이다. 독일의 심리학자 헤르만 에빙하우스는 피실험자들을 여러 그룹으로 나누어 의미 없는 음절을 외우게 하고, 각각 다른 시간을 기다린 뒤 내용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했다. 실험 결과, 20분 뒤에 확인한 그룹은 약 58%, 24시간 뒤에 확인한 그룹은 약 33%의 내용을 기억하고 있었다. 소멸이론 외에도 간섭이론, 동기적 망각이론 등 망각을 설명하려는 시도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

그렇다면 망각을 늦추고, 기억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방법으로는 덩이짓기, 맥락형성, 메타인지가 있다. 단기기억의 정보처리 한계는 다섯개에서 아홉개이기 때문에, 모든 정보를 한 번에 외우기보다는 여러 개의 의미덩이(chunk)로 나누어 외우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한 영국의 심리학자 던컨 고든과 앨런 배틀리의 맥락 형성 실험에서 잠수부들은 어떤 단어들은 지상에서, 다른 단어들은 물속에서 외웠다. 실험 결과 잠수부들은 각 단어들을 외웠던 환경에서 더 잘 기억해냈고, 이후 여러 연구에서 옷차림, 환경의 소음 정도 등이 기억의 인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마지막으로 메타인지란 인간의 인지 상태와 처리 과정을 인식하고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메타인지는 자신이 어떤 지식을 알고 모르는지, 해결해야 할 과제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인지 등을 판단하고 원래 가지고 있던 지식을 적절한 곳에 활용하게 한다. 소크라테스의 문답법과 비슷하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답해보는 공부법, 백지에 학습 주제만 적은 뒤 나머지 내용을 채워보고 부족한 부분을 확인하는 백지 공부법 등이 모두 메타인지를 활용한 학습법이다. 기억 속에서 인간은 가장 부유하며 또 가장 빈곤하다는 알렉산더 스미스의 말을 떠올리며, 바쁜 경기외고의 하루하루 속에서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기억을 쌓아가기 위해 노력해보자.

검경 수사권 조정



검경 수사권의 조정과 관련하여 2022년 형사 소송법이 개정되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 구조 문제를 비롯하여 인사, 인력, 자치, 정보, 수사, 치안 등에 관한 대한민국 수사 구조 문제, 즉 검찰과 경찰 권한을 어떻게 분배하는지에 관한 문제이다. 수사권 조정에서 세분화 할 수 있는 권한은 크게 4가지로 수사 개시권, 수사 지휘권, 수사 종결권, 영장 청구권에 해당된다.

2011년 개정 형사소송법에 수사 개시권은 경찰과 검찰 모두에게 있지만, 수사 지휘권은 검찰에게만 있었다. 수사 종결권, 영장 청구권 또한 경찰에게는 없지만 검찰에게는 있다. 2011년 개정 형사 소송법에 따르면 수사에서 경찰은 검사에 복종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이러한 권한의 비대칭에 있어 검찰은 공소권과 주종 관계에 있는 형사 소송상 수사의 정의 “공소의 유지, 판단을 위한 범죄의 증거 수집과 보존 행위”에 따른 당연한 권한이라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들은 영미법 국가와 같은 “경찰은 수사, 검찰은 기소”를 주장하며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개정된 후의 형사소송법은 경찰의 수사 종결권이 제한적으로 생겼다. 또한 검찰의 경우 수사 지휘권을 몇가지 예외를 제외하고 박탈 당했다. 검사는 수사 전반에 대한 통제, 종결권 등 모든 권한을 향유하며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다. 이에 대한 견제책으로 재정 신청 등의 소추 견제 수단이 있으나, 수사권에서도 수사 전반에 미치는 검사의 권한에 대한 견제책을 요구하는 입장이 대두되어 현재의 수사권 조정 맥락에 이르렀다.

10년보다 전부터 경찰이 수사권 조정을 늘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실현되지 않고 있는데 그 까닭은 검찰의 격렬한 반대와 국민들의 경찰에 대한 불신 및 국민들의 피로도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근현대사 역사를 살펴보면 경찰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이승만 독재 정권의 총살 한 총견으로 낙점되어 민중의 지팡이가 아닌 정권의 앞잡이가 되어 국민들을 탄압했고, 수사권 등을 이용하여 억울한 이들을 만들어냈다.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 때문에 국민들의 경찰에 대한 불신의 뿌리가 깊을 수밖에 없다. 또한 근현대사에서부터 이어진 불신은 최근에 일어난 사건 때문에 불신이 더욱더 깊어져 갔다. 그 사건은 바로 인천 증간 소음 흥기 난동 사건이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이 가해자가 피해자를 공격하는 상황임에도 아예 현장에서 도망치는 바람에 피해자들이 중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경찰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했다. 경찰은 최순실 국정 농단에서의 검찰개혁에 대한 여론을 이용해 수사권 조정을 요구하는 등 당당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경찰의 수사권 조정 요구를 대변하고 있는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이 “검찰은 부패한 권력이기 때문에 해체되어야만 하는 기관이다.”라고 말하며 노골적으로 검경의 갈등을 부추기는 행동들을 보여줌으로써 조금 더 얻어야 할 국민들의 신뢰를 자신들의 손으로 버리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제까지 지지부진했던 이유 중 하나로,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 국민의 피로도를 들 수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몇 년 사이에 갑자기 주목받은 이슈가 아니라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꾸준히 제기된 사안으로 약 20년의 기간 동안 한번도 제대로 조정이 된 적이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들 입장으론 솔직히 검찰이 수사지휘권을 가지든 경찰이 독자 수사를 하든 범인만 잘 잡으면 신경 쓸 일이 아닌데 이 문제를 가지고 검경이 치고받고 싸우는 동안 자칫하면 일은 똑바로 안 한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국민들의 피로도가 높아짐으로써 국민들이 이러한 조정에 대해 관심을 끄게 된다. 국민들이 관심을 끄게 되니 동력을 잃은 논의는 좌초되기 굉장히 쉽다. 아무리 오랫동안 검경 수사권 조정이 언급이 됐더라도, 국민들의 관심과 실현 가능성이 없다면 조정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다.

국민들의 관심이 서서히 꺼져가고 있는 지금도 검경 사이에서는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격렬한 갈등들이 존재한다. 경찰청장은 수사권 조정 문제를 두고 검찰과 대립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은 공개적으로 수사권 조정에 대한 강한 어조의 입장 자료를 발표 하고 있으며 계속 문제를 삼아 여론을 업고 대선 후보들의 공약 실행을 압박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검찰이 뇌물/수사 청탁을 받은 경찰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검경 수사권 조정의 갈등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다. 매번 대선 때마다 바뀌는 당에 따라 검경 수사권 조정의 실현 여부가 바뀌었다. 예를 들면 17년 5월 9일부로 수사권 조정을 포함한 검찰개혁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으므로 수사권 조정은 실현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졌다. 검경은 서로서로 물어뜯기 바쁘고, 요즘 검찰은 민생사안과 관련된 범죄를, 경찰은 기업 비리에 대한 범죄를 집중 수사하는 등 각 기관이 서로 반대되는 수사 관행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에 일각에서는 수사권 조정 논의를 앞두고 권한을 지키려는 검찰과 뺏으려는 경찰의 엇갈린 행보라고 해석했다. 검찰이 이른바 기업의 갑질 문화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데 국민들의 우호적인 여론을 얻어 ‘인권 검찰’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는 곳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와 반대로 기업의 비리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대한그룹 조양호 회장의 회사 자금 횡령 의혹에 대한 대한항공 본사 압수수색 이 그 예이다. 이렇게 검경은 서로를 물어뜯고 갈아 내리면서까지 경찰은 검찰의 수사권을 가지고 오고 싶어하고 검찰은 자신의 권한인 수사권을 지키고 싶어 한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지 못한다면, 검찰과 경찰의 갈등은 더욱 더 깊어질 것이다. 오히려 경찰은 수사권을 가져오는 대신 자신들의 개혁 방안을 제시하고, 검찰은 자신의 수사권을 넘겨주고 동시에 자신들의 개혁을 스스로 실천해야 한다.

Media Representation, How Far To Go?

How many iconic, ground-breaking movies and TV shows have we had the honor of watching in the past decade? For as long as we can remember, we have been spending away our free time enjoying different forms of media. Especially with the growth of streaming platforms, which only accelerated since the beginning of the pandemic, TV shows or movies have generally been our media of choice. And more often than not, these forms of media follow protagonists we can connect with and relate to. In fact, the relatability of the characters is a huge selling factor for a great number of shows.

Yet somehow, the lack of diversity still remains a huge issue, now more than ever. Of course, it is not to say there has been no progress. Rather, the problems which had previously been unrecognized are now coming to the surface thanks to the progress we have made so far. According to a study conducted by UCLA, titled "Hollywood Diversity Report 2022", the percentage of 2021's top 200 films starring people of color as the lead has nearly quadrupled since 2011. Furthermore, women accounted for 47.2% of film leads in 2021, which is near twice the amount in 2011, which was 25.6%. It seems that the matter of representation in media has now been rightfully brought to the attention of the film industry.

To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representation better,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what representation means. The BBC defines representation as "how media texts deal with and present gender, age, ethnicity, national and regional identity, social issues and events to an audience". In a narrower definition more specific to movies and TV shows, it typically means the way the media translates real-life aspects into its characters, settings, and scenarios. This concept is closely intertwined with diversity in media, which generally refers to the depiction of various groups of people in media. In other words, if a show has a main cast of actors that are from varying backgrounds, it would be called diverse.

How media shapes our worldview is very apparent. For instance, people of color are often depicted as poverty-stricken and as outlaws, while the cops that deal with them are overwhelmingly white. This undoubtedly leads to enforcing the audience's previously existing misconceptions which make them subconsciously judge actual people of color around them based on those stereotypes. This is actually a serious issue impacting our lives. Recent research has found that exposure to the media portrayal of something as seemingly innocent as Disney princesses or superheroes influences children's gender stereotypes significantly. These issues have become much more real and serious in the past few years, alongside the rise of mass med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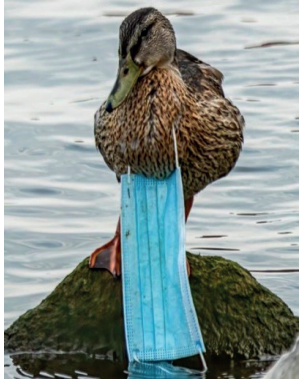


This is exactly why the new The Little Mermaid movie is bringing on a lot of controversies right now. Should we value the diverse representation of marginalized communities over the familiarity and nostalgia for the original animation? There's another compelling argument for why it wasn't a great idea to cast a black actress for the role — as a newly turned human, Ariel has to learn to fit into the "human society". During these scenes, she exhibits behaviors that can be described as uncivilized or primitive. Who helps her overcome that is — you guessed it, the prince; a white man. Even so, a huge number of young black girls are excited to see their favorite Disney princess resembling them. After all, there is no reason a mermaid, a mythical creature, should be of any specific race. There are also people saying that this is just a fictional character and her skin color means nothing and is utterly unimportant to the movie. So which is it? Is this new movie problematic? Or is it important step towards inclusivity? The internet seems unable to decide.

Media truly is a double-edged sword. It enables us to indirectly experience the lives of people in completely different situations from us, but it also strengthens the current societal prejudices. We, as the audience, have the responsibility to stay critical of the media we consume. Of course, analyzing and intensely studying everything we watch would be tiresome and simply not much fun, which is why the role of the creators of the media is so important. It is the creators' duty to be cautious when approaching themes that may encourage bigotry. When utilized correctly, media representation will play a key role in making sure the voices of minorities in our society are heard. The next time you watch a movie, take some time to note what aspects of "good representation" it incorporates into the story, and ways it could have been done better. Just like that, you have contributed to changing the world into an easier place to live in.

마스크는 일회용이다? NO! 이제는 폐마스크 업사이클링 시대

썩지 않는 마스크에 자연 파괴 심각해...



'새와 쓰레기' 프로젝트 제출 사진 중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우리 생활 속 필수품이 된 마스크, 많이 쓰이는 만큼 많이 버려지는 마스크는 새로운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었다. 마스크는 부직포와 철사 부분을 분리배출하기도 어렵고, 폐 마스크를 통한 감염 우려도 있어서 일반 쓰레기로 버려진다. 하지만, 마스크의 주재료인 폴리프로필렌은 450년이라는 시간 동안 썩지 않아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한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버려지는 마스크만 무려 1년에 73억 개이다. 이에 마스크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알리고자 런던 자연사박물관의 알렉스 본드 박사는 '새와 쓰레기'라는 제목의 온라인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 프로젝트는 폐기물, 그 중에서도 플라스틱 폐기물이 새에 미치는 영향을 포착하는 데 초점을 둔 프로젝트로, 그는 전 세계 사람들로부터 환경오염으로 고통받는 새들의 사진을 제보받았다. 제보 사진 속 새들은 마스크 줄에 부리가 걸려 있거나 마스크 속 철사를 삼키려 다 다친 모습이었다. 이처럼 폐 마스크로 인한 환경오염은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인간이 환경에 얼마나 큰 해를 끼칠 수 있는지를 증명한다.

그래서 고민했다! 폐마스크 업사이클링

그 첫 번째 사례는 이 분야의 퍼스트 무버인 김하늘 디자이너의 폐마스크 업사이클링 프로젝트, 'stack and stack'이다. 'stack and stack'은 말 그대로 쌓이고 또 쌓인다는 의미로, 플라스틱 재활용과 환경 보호에 대한 관심이 급부상하는 요즘, 왜 마스크 재활용 방안은 없는지에 대한 의구심에서 시작된 프로젝트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쌓여만 가는(stack) 마스크로부터 영감을 얻은 그는 마스크를 업사이클링 하여 만든 의자 또한 쌓을 수 있는(and stack) 디자인으로 만들었다. 의자로 만들기에는 다소 부실한 '마스크'라는 소재가 주는 우려들이 무색하게 화이트에서 핑크까지 다양한 색상의 마스크를 활용한 덕에, 업사이클링이라는 좋은 취지와 디자인 모두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또한, 의자 한 개에 1500장의 마스크를 녹여 사용한 덕에 100kg 하중까지 거뜬히 견딜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최근에는 등받이가 있는 형태까지 발전시켜 마스크 업사이클링의 가능성을 입증했다. 그는 의자뿐만 아니라 조명, 테이블까지 마스크 업사이클링의 영역을 넓혀나갈 자신만의 포부를 밝히며, 자신이 만든 의자가 단순히 마스크 재활용에서 그치지 않고,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상기시키고,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찾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밝혔다.



김하늘 디자이너의 폐마스크 업사이클링 의자



트리플래닛 스밈 화분 사진

폐마스크 업사이클링, 그 두 번째 사례는 소셜벤처 트리플래닛의 '스밈 화분'이다. 스밈 화분은 한 달에 한 번만 물을 주면 화분이 스스로 물을 흡수하는 이중구조 화분으로, 투명한 걸 화분과 하얀색 세라믹 화분으로 이뤄져 있다. 이 화분은 일회용 마스크의 자투리 원단과 투명 페트병으로 만들어져 환경호르몬을 배출하지 않는다. 트리플래닛은 지난 2010년부터 반려 나무 한 그루를 입양하면 그 수익금으로 숲에 나무 한 그루를 심는 캠페인을 진행해왔다. 이후, 코로나19의 발생으로 폐마스크가 환경 오염의 원인으로 자리 잡자, 버려지는 마스크 원단을 활용한 화분을 제작했다. 이와 관련해 트리플래닛 측은 한 인터뷰에서 "환경 오염을 해결하려면 쓰레기 문제 또한 해결해야 한다. 그 방법 중에 하나로 폐마스크와 플라스틱을 재활용한 화분을 만들었다"라고 밝혔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셀 수 없이 버려지는 마스크와 그로 인한 환경오염. 그렇지만, 사회 곳곳에서 환경과 우리를 지키기 위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인간의 활동으로 건잡을 수 없이 오염되어 버린 환경이지만, 남은 환경이나마 우리의 힘으로 지킬 수 있을지, 환경보호와 재활용의 미래에 귀추가 주목된다.

교육계의 뜨거운 감자, 잇따르는 '외고폐지' 논란 급진적인 공론화 과정 속 향후 외고의 미래는...?

최근 경기외국어고등학교에서 8.15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2023 입학설명회를 하며 내년 입학 및 신입생 유치에 힘을 쏟고 있는 모습이다. 이외에도 수원 외고, 성남외고, 과천외고, 부일외고 등 많은 외고들이 현재 2023 신입생 모집을 위한 입학설명회를 잇따라 개최 중에 있다. 하지만 설명회를 들으러 오시는 학부모님들, 교내 교사진분들, 무엇보다 외고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찝찝한 구석이 있다. 바로 윤석열 정부의 '외고 존폐' 논란이다.



8.15 입학설명회를 중 선배들과 만남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다.

출처 - 경기외국어고등학교 홈페이지

최근, 이전에 발표한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 논란에 이어 이번에는 외고를 비롯한 고교 체제 개편안을 놓고도 논란이 커지고 있다.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학제 개편안은 사안의 민감성 자체뿐 아니라 그동안 대통령 공약에서도 언급되지 않았던 내용이 사전 예고도 없이 갑자기 등장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더욱 커졌는데, 외고 폐지 방침 역시 비슷한 방식으로 발표됐기 때문이다. 8월 7일 교육계에 따르면 박순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월 29일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외고를 폐지하거나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밝혔고 그 후 '외고 폐지' 방침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대통령 업무보고에 포함된 것인지 의아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전 정부였던 문재인 정부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가 '학교 서열화'를 조장한다는 시각에서 이들 학교를 2025년 3월 1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에 '다양한 학교 유형을 마련하는 고교 체제 개편'을 담아 추진해왔기 때문에 이전 정부의 폐지 방침을 뒤집고 외고 등 특목 고교들을 존치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하지만 이는 윤석열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정책과는 반대되는 관측이었다.

이러한 급진적인 교육부의 교육방침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는 게 당연한 듯하다. 항상 정책을 시행하는 데에 있어서는 '행정절차'의 과정을 착실히 밟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책이 급진적으로 진행되면서 문제점이 부각되는 면이 있다. '만 5세 입학'을 예로 들어보자면 어린 나이부터 교육 기능을 강화하여 사회 진출의 시기를 앞당긴다는 취지, 적기에 질 높은 교육을 하겠다는 취지가 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반대하고 있는 것은 외고 폐지라는 정책이 아닌 충분하지 못한 여론조사와 급진적인 공론화 과정이 아닐까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부동산의 전망

일본의 버블 경제 상황과 비교하여

일본 버블 경제가 붕괴하기 직전의 모습이 최근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다. 당시 모습이 현 우리나라 사회 모습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이다. 이에 현 우리나라 경제 상황 역시 그 당시 일본처럼 '거품'이 꺼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경제 불황이 도래할 것이라고 걱정하는 의견이 많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과거 일본 버블 경제 시기의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86년부터 1991년 사이를 일본의 버블(거품) 경제 시기로 부른다. 이 시기에 일본은 최대의 경제 호황기를 겪었고, 그 시절은 현재까지도 일본인들이 가장 그리워하는 시기로 꼽힌다. 당시 일본은 저금리정책을 펼쳤고, 이에 따라 부동산과 주식 등 실물경제의 가격이 폭등했다. 그러나 버블 경제가 종결된 후, 일본에는 극심한 장기침체인 '잃어버린 10년'이 도래했다. 버블 경제의 여파로 일본의 주식 가격은 폭락하였고, 이는 곧 2007년 금융 위기까지 이어지게 된다.

일본 버블경제의 배경으로는 1985년 미국과의 '플라자 합의'를 들 수 있다. 플라자 합의란, 1985년 9월 22일 미국 뉴욕에 있는 플라자 호텔에서 G5 경제선진국 프랑스, 서독, 일본, 미국, 영국의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들의 모임에서 발표된 환율에 관한 합의를 가리킨다. 당시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당시 금리는 두 자리에 달했고, 달러의 가치는 계속 상승하였으며 이로 인해 미국에서는 수출 감소와 수입 확대 즉, 무역 불균형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높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는 엄격한 금융 긴축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미국은 플라자 합의를 통해 달러 가치는 내리고, 일본 엔화와 독일 마르크화 가치를 높이는 정책을 채택했다. 그 결과 달러의 환율은 계속해서 하락했고, 1년 후에는 그 가치가 반이나 떨어지게 되었다. 미국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서 미국 수출품 가격 역시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했다. 이에 따라 점차 많은 나라가 미국이 생산한 제품과 서비스를 더 많이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반면 플라자 합의로 인해 일본은 수출이 줄고, 경기가 둔화될 조짐을 보였고, 이에 일본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저금리 정책과 더불어 부동산 대출 규제를 급격히 완화하였다. 이에 기업과 개인 모두 대출까지 받아가며, 부동산과 주식에 몰리는 현상이 나타났다. 은행은 기업에 부동산을 담보로 100% 이상을 대출해주기도 하였다. 이처럼 모든 자금이 부동산과 주식에 몰리면서 거품이 커져갔다. 결국, 엔화는 급격하게 상승했고, 일본은 거품경제 붕괴를 맞이하였다. 이로 인해 대기업에서는 채용을 취소하거나 도산 및 대규모 정리해고가 진행됐으며, 주식과 부동산 가치는 폭락하고, 이에 따라 소비심리는 급격히 위축되어 일본은 최악의 경제 불황을 겪었다.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은 2020년에 시작된 코로나로 인한 양적 완화정책으로 돈이 풀려서 생긴 거품이 일부 있기는 하지만, 은행의 부동산 대출 담보 비율에 대한 국가에 의한 관리, 2020년부터 시작된 주식시장에서의 유동성 확대에 의한 영끌 투자는 2022년에 거품이 이미 꺼져 있는 상황이므로 일본과는 상황에 차이가 있다. 다만, 최근 하락세를 보이는 부동산 시장에서의 경착륙을 정부에서도 우려하여 조심스럽게 연착륙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일본과 같은 부동산과 주식시장에서의 급락은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

[기획기사]

<1984년>과 <시녀 이야기>, 심리, 그리고 전체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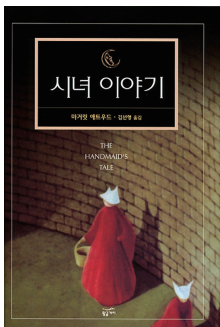
경고되고 지킬고사보다 간지 있는 기사

디스토피아 작품을 읽어 본 적이 있는가?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디스토피아'(dystopia)의 정의는 '현대 사회의 부정적인 측면이 극단화한 암울한 미래상', 내지는 '역유토피아'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디스토피아 장르의 대표작은 <헝거게임>, <기억 전달자>, <화씨 451>, <동물농장> 등으로, 이러한 작품들은 주로 전체주의적 정부에 의해 억압받고 통제되는 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디스토피아는 가상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역사적으로는 나치 통제 하의 독일이 전체주의 사상을 따른 것으로 유명하지만 우리와도 가까운 나라, 북한에서도 전체주의적 사고로 국민들을 감시 및 통제한다. 정상적인 사회의 시민인 우리들은 이들이 어떻게 순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독재 정권 아래의 사람들은 어떻게 저항 시도조차 하지 않을 수 있을까? 조지 오웰의 <1984년>과 마거릿 애트우드의 <시녀 이야기>를 읽고 이 물음에 대해 심리학적으로 접근해 보자.



<1984년>은 조지 오웰이 상상한 1984년의 모습을 그려낸 디스토피아 소설로, 3개의 초국가 — 오세아니아, 유라시아, 동아시아 — 로 이루어진 세계를 배경으로 한다. 이 초국가들은 세계 인구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노예가 살고 있는 곳을 차지하기 위해 시작과 끝이 없는 전쟁을 계속하고 있다. 세계는 항상 전쟁 중이기 때문에, 초국가들은 모두 가상의 인물을 정권의 중심으로 내세우고 국민들로 하여금 적대 국가를 증오하도록 한다. 책의 주인공 윈스턴은 오세아니아의 당원 중 한 명이지만 대형에 반감을 가진 인물이다. (대형은 앞서 언급한 정권의 가상 중심인물이다.) 윈스턴은 그와 비슷한 견해를 가진 줄리아와 오브리언을 만나 '형제'에 가입하지만, 오브리언은 윈스턴을 체포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그와 접촉한 내부당원이다. 결국 윈스턴과 줄리아는 오브리언의 고문에 의해 당에 충성하도록 세뇌당한다.



<시녀 이야기>는 1985년 출판된 마거릿 애트우드의 디스토피아이자 공상 과학 소설로, 1990년대 말경에서 2000년대 초입 사이 가상의 미국을 배경으로 한다. <시녀 이야기> 속의 미국은 전쟁과 환경 오염 등으로 출생률이 급격히 감소한 상황이다. 소설 속 미국은 극우적인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 지배하는 '길리어드'로 바뀌고, 정부는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혼자와 미혼모와 같은 여성들을 일명 '시녀'로 만들어 기본권을 빼앗고 인구수를 늘리는 데 집중하게 만든다. 소설의 서술자는 '나'로, 시녀들은 본명으로 불릴 일이 없기 때문에 독자는 끝까지 주인공의 이름을 알지 못한다. 책의 초반부에서 그녀는 겉으로는 반항적인 행동은 보이지 않더라도 정권에 불만을 품고 있었고, 반정부 단체에 속한 다른 '시녀'를 만나며 자유를 갈망하지만, 후반부에서 사령관의 총애를 받게 된 후에는 약간의 자유를 허락받고 점점 자신의 상황에 안주하게 된다.

그렇다면 두 작품은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을까? <1984년>은 전체주의 사회에서 개인이 어떻게 사회에 물들게 되는지 그 심리를 정확히 명시한다. 바로 '이중사고(doublethink)'이다. 국민들은 주기적으로 '증오' 기간을 가진다. 오세아니아 당원은 노골적으로 적대국인 유라시아에 대한 증오를 표출하고, 오세아니아 국민들은 그에 동화되어 마구 흥분한다. 하지만 도중에 유라시아는 오세아니아의 적대국이 아닌 동맹국이라는 사실이 밝혀진다. 이때 국민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그들은 엉뚱한 상대에게 화를 풀었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갖지 않는다. 심지어 당이 그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는 사실에 화가 나지도 않고, 의구심이 들지도 않는다. 국민들 사이에는 그저 '알았다는 듯, 조용한 파문이 번질' 뿐이다. 그들은 여태껏 붙여놓은 유라시아에 대한 증오 포스터들을 갈기갈기 찢으며 '반란자들의 짓'이라고 소리친다. 이 비정상적인 사고방식은 '이중사고'로 설명할 수 있다. 이중사고란 두 개의 상반된 사실을 모두 수용하는 사고방식이다. 이중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죄지'를 발휘해야 한다. 죄지만 어떤 위험한 생각이 떠오르는 바로 그 직전에 본능처럼 멈춰 정지하는 능력을 말한다. 즉, 당에 조금이라도 반기를 품게 되는 생각이 떠오르면, 그 생각을 본능적으로 지우고, 그 기억을 지웠다는 사실조차 잊는다. 이를 통해 두 개의 상반된 사실을 모두 받아들이는 이중사고가 가능해진다. 앞서 언급한 상황에서도 이 사고가 적용된다. 국민들은 '당이 우리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생각은 재빨리 죄지로 지우고, 이중사고를 통해 '유라시아는 동맹국가이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인다. 따라서 국민들에게는 '유라시아는 예전에 적대국가였다'는 사실은 존재조차 하지 못한다. 이렇듯 '이중사고'와 '죄지'는 개인 차원에서 더 나아가 전체주의 사회로 하여금 역사 그 자체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한다.

<시녀 이야기>는 '나'의 내면 서술이 상세하기로 유명하다. 비록 이는 빠른 전개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자세한 심리 서술로 등장 인물들에게 공감할 수 있게 만들고, 인물들을 심리학적으로 접근하기에 도 용이하게 한다. 예를 들어 이 책에서 기본적인 권리의 제한이 극한에 다다른 상황에서 인물들은 안나 프로이트가 정의한 방어 기제의 여러 단계들을 보여 준다. 자기방어기제의 1단계에 속하는 행동에는 '부정과 부인'이 있는데, 이는 고통스러운 환경이나 위협적 정보를 공상을 통해 거부 및 도피하려는 것이다. 길리어드 정권이 처음 들어선 이후 시녀가 되기 위한 교육을 받는 장면에 자신이 처한 현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재닌이라는 인물이 있다. 그녀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시녀가 되기 이전의 직업이었던 웨이트리스로서 하던 말인 "내 이름은 재닌이에요. 오늘 아침 여러분 식탁을 담당한 웨이트리스랍니다. 우선 커피 한 잔 가져다 드릴까요?"라는 말만 반복하는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는 외부의 자극을 부정하고 공상을 통해 불안한 현실을 기분 좋은 환상으로 대체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2단계의 예시로는 자신이 범자에게 가한 폭력을 범자의 탓으로 돌리는 장면에서 '투사'가 드러나고, 억압에서 벗어나게 도와주겠다는 불법적 제안을 받았을 때 손이 떨리는 것에서는 '신체화'가 드러나며, 주인공 '나'가 체포 당하는 순간과 같이 극한의 공포 상황에 처했을 때 오히려 아무 감정 없이 멍해지는 것은 '해리'라고 볼 수 있다.



자기방어기제 외에도 에릭 에릭슨의 자아 심리학 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나'가 자신의 방을 스스로의 것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것은 전체주의 정치로 인한 자아의 상실을 나타낸다. 또한, 빅터 프랭클의 로고 테라피 이론은 인간이 삶에서 의미를 찾고 동기를 얻어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 이론은 길리어드의 시민들은 왜 막연히 전쟁이 끝날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주인공이 왜 약간의 자유를 얻게 되자 저항하려는 시도를 포기했는지에 대해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준다. 바로, 자신의 희망과 자유가 거저된 것이더라도 이를 삶의 동기로 삼아 하루하루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1984년>과 <시녀 이야기>는 전체주의적 독재 정권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다룬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들은 반정부적 사상을 가질 생각조차 하지 못한다. 이를 읽으며 생각하기에 정부로부터 부당한 억압을 받는다면 직접적으로 반항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스스로 억압받는 것을 정당화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역사적으로도 부당한 지배에 저항하여 수많은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는가. 하지만 디스토피아 소설 속 사회는 단순한 독재 사회가 아니다. 이러한 사회의 구성원들은 철저하게 세뇌당해 사고 방식에서부터 '개인'이랄 것이 없어진다. 저항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저항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두 소설에서 이러한 사회가 가능하게 된 것에는 군중 심리가 큰 영향을 미친다. 군중 심리란 집단적으로 모인 사람들의 감정이 동화되어 가는 현상을 일컫는다. 별다른 강요가 없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모두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 저절로 합세하게 된다는 것이다. <1984년>에서는 '2분 증오'로 이것이 표현된다. 군중 심리가 형성되기 위한 요소인 군중의 공통의 관심은 대형을 배신하고 형제에 가입한 '골드슈타인'이라는 인물이다. 오세아니아의 사람들은 골드슈타인을 적으로 삼고 함께 그를 향해 분노를 표출하는 시간을 가진다. 맹목적으로 부정적인 감정들을 한 사람에게 쏟아내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져도 모든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니 군중 심리로 인해 자신도 모르게 따라하게 된 것이다. <시녀 이야기> 역시 비슷하게 자유가 거의 없는 시녀들에게 주어지는 유일한 권한 중 하나는 범죄자, 그 중에서도 시녀에게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이다. 시녀들은 처음에는 머뭇거렸지만, 한 명이 범죄자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을 보자 모두가 합세하여 범죄자에게 '처벌'을 내린다. 처벌하는 순간에는 개개인은 중요하지 않으며 '시녀'라는 공동의 정체성만 남게 된다. 이렇게 '개인'은 사라지고 '전체'만 남게 되는 것이다.



군중 심리 외에도 '가스라이팅'은 대중으로 하여금 전체주의 사회를 따르도록 유도한다. <1984년>에서 가스라이팅은 소설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오브리언이 윈스턴을 고문할 때 가스라이팅이 생생히 드러난다. 오브리언은 윈스턴에게 "둘 더하기 둘은 다섯이다."라고 강압적으로 말한다. 그러고는 윈스턴에게 "둘 더하기 둘은 무엇이지?"라고 물어본다. 윈스턴은 당연하게도 넷이라고 말하고, 오브리언은 윈스턴이 다섯이라고 말할 때까지 고문을 계속한다. 그리고 당을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며, 윈스턴도 당에 충성을 다해야 스스로에게 이득임을 당부한다. 이는 타인을 세뇌시키는 동시에 세뇌의 명분을 타인의 허구적 이득에 두는 전형적인 가스라이팅의 예시이다.

마찬가지로 <시녀 이야기>에서도 가스라이팅의 예시를 찾을 수 있다. 길리어드 정권 초기 여성들의 인권이 제한되기 시작할 때 이들은 일하던 직장에서 강제로 해고당하는데, 아무런 설명이나 예고 없이 갑자기 해고되는 것은 분노할 만한 일이지만, 그때까지 조금씩, 하나씩 권리를 잃어버려온 상황에서 이 여성들은 조금 떨떠름해 할 뿐, 분노가 아닌 "그런 일을 당해 마땅하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표현한다. 주체성을 상실하고 억압자의 주장대로 자신이 처한 부당한 상황은 당연한 것이고 이에 반항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여기게 된 것이다. 이는 전체주의 독재 정권에게 강력한 무기가 되어준다. 반란을 일으키고자 하는 생각을 억누르도록 하는 것이 아닌 그러한 생각을 애초에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우리는 한가지 질문을 던졌었다. '독재 정권 아래의 사람들은 어떻게 저항 시도조차 하지 않을 수 있을까?' 우리는 '문학'과 '심리'라는 렌즈를 통해 이 문제를 들여다 보았다. 소설 속 세계는 필연적으로 현실을 반영하기에 이로서 현실을 이해할 수 있다. 특히 <1984년>과 <시녀 이야기>는 풍자소설로, 작가가 의도적으로 실제 사회의 문제를 소설이라는 형식으로 풀어낸 작품들이다. 이 두 소설은 아주 오래 전에 쓰여진 책이다. 하지만 전체주의 사회의 일부는 여전히 현대 세계 곳곳에 남아 있다. 직접적인 예로 북한 등 사회독재체제 국가가 있다. 한 명의 독재자를 중심으로 사회의 억압적 분위기에 순응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처형한다. 북한에서는 현재도 공개재판과 공개처형이 일어난다. 대중은 지속적인 가스라이팅을 통해 처형당하는 범죄자를 바라보며 그들은 처형당할 만한 일을 했다고 믿게 된다. 또한, 무수한 집회 참여로 군중 심리에 선동당하여 독재자를 숭배하고 그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게 된다.

그러나 대중이 전체주의 사상에 지배당하는 것은 북한과 같은 극단적 독재 국가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여전히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는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해서도 우리 사회가 자칫 전체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예를 들어 영국 정부는 팬데믹 초기에 비상 사태를 위한 과학 자문 그룹이라는 조직을 설치하였다. 이 그룹에 속한 과학자들의 폭로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통제하였다고 한다. 그들은 회복한 사람들의 수나 사망자의 수를 평상시와 비교한 결과 등의 맥락은 전혀 포함하지 않은 호도적 뉴스만 보도함으로써 대중을 선동하였다고 인정하였다. 이스라엘이나 헝가리 등도 코로나 긴급 조치라는 이름 아래 민주주의를 뒷받침하는 제도들을 폐지 한적이 있다. 물론 전 세계적 비상 사태에서 대중의 통제는 필수적이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이 몇년째 지속되는 것은 권력을 가진 자들이 시민들을 무조건적으로 억압하는 것을 너무나도 유리하게 만든다. 그렇기에 우리는 <1984년>과 <시녀 이야기>를 읽는다. 우리는 현대 사회의 윈스턴이지는 않은가? 줄리아와 오브리언이 과연 소설 속에만 있는 인물일까? 현실에는 세레나 조이나 사령관 프레드가 없을까? 디스토피아 소설은 곧 어디선가 일어나고 있는 현실의 부조리함을 과거에서 고발하는 작품이다. 단지 책을 읽고 감상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현실 세계에서의 독재와 전체주의를 경계하자.

기획기사 작성에 참여한 부원들 소감

1320 유승우

조지 오웰의 소설인 <1984> 중 발췌한 부분에서 드러난 등장인물들의 심리와 정부의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고도의 심리전략을 분석해 보며 새로운 심리학적 지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중사고'에 대해 조사하였는데, 이중사고의 정의와 이중사고의 효과와 소설 속 이중사고가 끼친 영향에 대해 깊이 고찰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810 박다영

작품에서 활용된 심리 이론을 분석해야 하는 일을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쉽게 찾을 수 있어서 작가가 심리도 고려해 꼼꼼하게 적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처음 해보는 활동이었는데 신박했고 재밌었습니다.

2308 민세

<1984년>은 개인적으로 신선한 충격을 받으며 읽었던 책이라 책을 하나하나 뜯어서 심리학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이 재미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책을 읽고 친구들과 이런 부분이 재미있었다, 이런 부분은 좀 아쉬웠다고 소감을 나누는 것에서 그쳤는데, 이렇게 타 동아리 부원들과 주제를 정하고 심층적 탐구를 진행하여 정말 좋은 활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1618 장하영

심리학 이론을 조사해보기 전에 조에서 선정한 도서 두 권에서 글을 발췌해 심리학 이론의 쓰임을 유추해보면서 평소 저의 관심 분야였던 심리학에 대한 관심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심리학 이론을 형식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학적 현상이 쓰인 부분을 예상하여 찾아낸 후, 관련된 이론을 조사해 볼 수 있어 심리학에 대한 탐구심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또, 전체주의 사회 환경에 놓인 사람들의 심리를 분석해보면서 환경이 개개인의 자아 실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2301 권수민

활동의 시작 단계에서 주제를 정할 때 <1984년>과 <시녀 이야기>를 언급한 것은 두 소설이 굉장히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이유도 있지만, 사실 단순히 읽으면서 재미있었기 때문이기도 한데, 그런 막연한 공통점들로부터 의미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낸 부원들 모두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문학이라는 것도 결국은 우리와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가상의 인물들일지라도 이들을 심리학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1623 김정윤

문학작품을 심리적 관점에서 분석해본 것이 처음이라서 흥미로운 경험이었습니다. 또 군중심리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군중심리가 무엇인지, 군중심리가 작용하는 조건 등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84> 속 어느 부분에서 군중심리가 작용하는지에 대해 분석해보며 군중심리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 수 있었습니다. 평소 심리학에 관심이 있었지만 실제로 심리학 이론을 적용해본 것은 처음이라서 재미있었고 좋은 기회였습니다.

*이 기사는 스프레드X뜨락의 연합 활동에 참여한 1320 유승우, 1618 장하영, 1623 김정윤, 1810 박다영, 2301 권수민, 2308 민세의 발표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뉴로 마케팅과 실생활의 적용



마케팅이란 소비자를 대상으로 고객을 창조하고 유지, 관리함으로써 고정 고객으로 만드는 모든 활동 즉, 고객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이번 연합 활동에서는 마케팅과 사회과학을 융합시킨 뉴로 마케팅을 조사해 활동을 진행하였다. 마크 제이콥스, 지그재그 광고의 장점을 분석하여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한 마케팅 성공 사례를 조사하는 한편, 도미노피자, 카카오웹툰의 실패 마케팅으로 고객을 창조하고 유지시키는 마케팅의 정의와는 반대되는 사례를 설명했다.



SUCCEEDED

LG Gram

- ☒ 명확한 마케팅 포인트
- ☒ 체험마케팅 성공



FAILED

따라서 위와 같은 마케팅 실패 사례를 감소시키기 위해 소비자의 심리 및 행동을 분석하는 좀 더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마케팅 방법으로 뉴로 마케팅을 강조하였다. 뉴로 마케팅은 뇌파를 통한 감성 인식, 안구 운동 추적, 심박과 피부 전도도 등을 통해 뇌와 연관시킨 과학적인 마케팅임을 알렸고 이를 이용하여 '거짓 없는 뇌'를 활용해 진실하고 극대화된 마케팅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을 소개했다. 뿐만 아니라 언어표현의 한계에 대한 보완, 무의식적 분야, 실시간 측정에 효과적임, 조사를 통한 모델링 연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며 뉴로 마케팅이 필요한 이유를 이야기했다.

사람들의 심리를 자극하지 못한 사례로 LG 마케팅을 예시로 들면서 뉴로 마케팅을 이용하면 어떤 식으로 광고하고 홍보해야 하는지 직접 적용해 보았다. LG는 대개 노트북과 가전 제품의 상품에서는 좋은 성과를 보여주었지만, 핸드폰과 같은 통신 기기에서는 그만큼의 수익을 내지 못했다. 따라서 LG 노트북의 마케팅과 LG 핸드폰의 마케팅을 비교해 보며 위와 같은 결과의 이유를 도출했다.

LG의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LG 그램'이 있는데, 무게가 가볍다는 점을 통해 다른 노트북과 차별점을 두었고, 체험 마케팅으로 소비자와의 거리를 좁혀 나가며 광고를 성공시켰다. 하지만 핸드폰의 경우 LG만의 특색이 두드러지지 않았고, 타사 제품을 능가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었다. 이는 어느 정도 과장을 요구하는 광고 속에 강하게 인식시킬 만한 요소를 추가하지 못했고, 과도한 편 마케팅으로 인해 소비자 심리를 간파하는 것에 실패했고 짧은 광고 속 포인트가 되는 부분을 만들지 못했기에 실패의 결과가 나왔다고 분석할 수 있었다.

분석한 단점을 극복하고자 통일되지 않은 LG만의 색깔을 노란색과 파란색이라는 구체적인 색을 정해 뚜렷한 인식을 줄 수 있게끔 마케팅을 구성했으며, LG에는 부족한 인공 지능 서비스 도입을 타사 제품과 비교되지 않을 만큼 서비스의 질을 올리고자 하였다. 마케팅 속에서 약간의 과장은 효과적인 요소기에 평소 사용하지 않았던 과정을 일정 부분 사용하고, 다양한 언어를 적용시킨 광고를 제작해 더 확장된 국외 홍보를 진행해야 함을 설명했다.

뉴로 마케팅은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정량화를 통한 혁신이 가능하다. 뇌를 이용하여 분석하는 것은 다른 분야들과 쉽게 융합시켜 사용이 가능하기에 마케팅 외에도 사용할 수 있는 분야가 많아 미래 전망이 밝다. 이번 연합 활동을 통해 마케팅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기존 마케팅에 더하여, 기술을 이용한 뉴로 마케팅까지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힐 대박

GAFL에서 이런일이?!

체육대회도 패, 앵클브레이크즈배도 패... 아..
중어과는 농구와는 연이 없구나..
생각하던 때! 드디어 2년 만에 중어과가 농
구를 이겼다. 처음이었다. 중간에 보러간 농구
경기에서 11:6의 11이 중어과인 것은.
진짜 거짓말인 줄 알았다. 농구가 이렇게 재미
있는 스포츠였다니! 모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중어과 짱 ♥

시험 전날, '아 안되겠다, 침자해야지.'
생각하며 각사로 들어섰다. 근데 잉? 저
게 뭐지? 도저히 뭔지 모르겠는 무언가가
복도 끝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궁금한 마음
에 다가가보니 시험 스트레스에 바닥에
누워있는 친구였다. 그 상황이 웃기기도 하
고, 친구가 걱정되기도 했다. 그렇게 나는
친구와 한참을 장난쳤다.

사범 몰래 교실에서 아이스크림을 먹었
다. ㅎㅎ 솔직히 성공할 줄 몰랐다. 결국서
OG카드를 받을 줄 알았다. 몰래 먹어서
더 맛있었던 것 같다.

암기 과목 시험을 앞둔 밤, 열심히 밤을
새며 공부해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분명히 침대에 앉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왜 일어나보니 7시 40분인거지..?
근데 아주 없었던 일도 아니라 괜찮았
다... 다음번에 꼭 새야지 아자아자!

GVT로 간 싱가포르에서 웜벳쌤과
함께 사진을 찍었다. 흔쾌히 찍어주셔
서 감사했다. 꼭 간직해야지 ㅎ!

새벽에 심자를 마치고 자려는데 갑자기 화재 경
보기가 울렸다고 한다. 나는 못 들었는데, 막 비상
등이 켜지고 비상계단에 사람이 몰려서 진짜 심각
한 상황이었다고 한다. 나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방에 있었다. 친구들이 나한테 여러번 전화했었
다는 데 그것도 몰랐다.
조금 지난 후, 밖에 나갔더니 이미 상황이 정리된
후였다. 그런데! 내 친구가 울고있더라. 처음에는
너무 놀라서 우는 줄 알았다. 근데 두고 온 내가 죽을
까봐 울었다단다 ㅋㅋㅋㅋㅋ 아직도 잊히지 않았
다.